

碩士學位請求論文

統一對備 學校教育에 관한 研究

— 初等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高 哉 洙

1997年 8月

統一對備 學校教育에 관한 研究

— 初等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高 哉 洙



高哉洙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康根亨
최정호
고승준

〈국문초록〉

통일대비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고 재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지도교수 고 성 준

통일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의 삶의 양식을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교육적 노력이 하루 빨리 전개되어야 한다. 교육 발달론적 관점에서 초등학교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들은 통일 이후의 주역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한 통일대비 교육은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을 대비하는 삶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통일대비 교육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는 I 장(서론)에서 밝혀 놓았다.

제II장에서는 통일대비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다루었다. 여기서 통일대비 교육의 의의는 통일 이후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일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교육적 준비작업에 있음을 밝혔다.

제III장에서는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 기본방향, 및 교수전략들에 대해 탐색하였다. 여기서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으로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을 제안하였고, 통일대비교육의 방향으로 크게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과 통일 이후의 삶의 양식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교수전략에서는 변화되어야 될 몇 가지 교수기법상의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였다.

제IV장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통일대비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발달 수준과 과업에 적합한 통일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의 단계와 내용선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여기서 통일대비 교육의 방법론으로 탐구수업모형, 역할극 활용모형, 정보통신매체 활용모형들의 유용성에 대해 소개 하였다.

끝으로 제V장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남은 논의를 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이질적인 두 체제가 통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경제적 통일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분단된 두 지역의 국민을 잘 교육하여 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한 가치체계를 공유하게 하여 심리적, 정신적 통일에 이르게 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부족한 본 연구가 이러한 통일의 장도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제 I 장 서 론	1
제 II 장 통일대비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4
1. 통일시대의 도래와 통일대비 교육의 필요성	4
2. 기존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7
1) 통일교육의 사적 개관	7
2) 제6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과 문제점	8
3. 통일대비 교육의 의의	17
1) 통일후유증의 극복	18
2) 통일이후 삶의 양식에 대비	19
제 III 장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과 기본방향	21
1. 통일대비 교육 이념설정의 준거	21
2.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설정	23
1) 민주시민 교육	23
2) 민족공동체 교육	25
3) 평화 교육	27
3. 통일대비 교육의 기본방향	28
1)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	29
2) 통일 이후 삶의 양식에 대비하는 교육	32
4. 통일대비 교육의 교수전략	35
제 IV 장 초등학교에서 통일대비 교육의 방안모색	38
1. 통일대비 교육의 목표설정	39
1) 초등학생의 인지적·정의적·도덕적 발달단계	39
2) 통일대비 교육의 목표설정	40
2. 통일대비 교육의 단계설정 및 내용선정	41
1) 통일대비 교육의 단계설정	41
2) 통일대비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43
3. 통일대비 교육의 방법 : 교수·학습모형의 개발	52

1) 탐구수업 모형	54
2) 역할극 활용 모형	58
3) 정보통신매체 활용 모형	62
제 V 장 결 론	65
참고문헌	69
〈Summary〉	72



표 차 례

〈 표-1 〉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과 내용영역	10
〈 표-2 〉 초등학교 도덕(바른생활)과 통일교육 내용	11
〈 표-3 〉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내용	11
〈 표-4 〉 고등학교 도덕(윤리)과 통일교육 내용	12
〈 표-5 〉 관련교과 통일교육 내용	12
〈 표-6 〉 도덕(윤리)과 통일교육 내용주제 비중	15
〈 표-7 〉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 요소	42
〈 표-8 〉 학교 수준별 민주 시민 교육 목표 구성의 영역	43
〈 표-9 〉 통일교육 내용체계	44
〈 표-10 〉 통일교육 내용요소	44
〈 표-11 〉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관련 지도요소	46
〈 표-12 〉 정치이념 및 체제	58
〈 표-13 〉 사회체제 및 구조	58
〈 표-14 〉 역할극 프로그램	61
〈 표-15 〉 PC통신 통일·북한 정보자료 목록	63



제 I 장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통일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둘러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간 우리는 학계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올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과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점쳐지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북한이 강력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주장하기에는 아직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 보아야 한다는 유보론도 제기되고 있다.

급작스런 붕괴든 북한이 체제포기에 따른 소멸이든 남북통일이란 오랜기간 동안 거의 교류없이 분단된 상태에서 평행선을 걸으면서 발전해 온 두 이질적인 체제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충격임에 틀림없다. 충격의 심도는 북한이 '연착륙'을 통한 붕괴인가 또는 돌발적인 붕괴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질적인 두 체제가 통합된다는 데는 어쩔수 없이 나타날 사실인 것이다. 말이 그렇지 이질적인 두 체제가 통합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경제적 통일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분단된 두 지역의 국민을 잘 교육하여, 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한 가치체계를 공유하게하여 심리적, 정신적 통일에 이르게 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통일은 심리적 통일에 이르러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 통일이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닥쳐올 수 있으므로, 비록 정치적으로는 소극적, 피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 모르나, 교육적으로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제6차 교육과정부터 우리의 통일교육은 그 이전에 비해 매우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통일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준비하는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하게된 것이다. 북한을 협력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형제로 강조하면서 남북한의 한 민족공동체됨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북한의 언어와 문화와 사회 현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였다. 요컨대,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지식을 폭넓게 심어주고 통일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를 배양하는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통일교육의 연장선 상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앞당긴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소극적이다. 현재를 기점으로 예기치 않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통일과 통일 이후에 민족공동체 형성의 주도권은 남한이 갖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는 동시에 책임과 부담을 의미한다. 독일의 통일사례는 이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후유증을 극복하며, 남북한 주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과 상호신뢰의 분위기 조성,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심리적 준비 등을 포함하는 시민정신이 남한에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는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통일교육이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길게 보아 우리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점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시대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당장 실시되어야 할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의 이념설정과 기본방향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자 나름대로의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과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기존 통일교육 논의들이나 연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내용의 선정과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기존의 논의나 연구들의 경우 대체로 통일교육의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기본방향에 대한 지적에 그칠 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학습현장에 반영시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나 사회 현장의 일선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들인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미약하나마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내용의 선정과 방법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구자 자신이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를 떠나서 초등학생은 발달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을 대비 하는 삶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통일대비 교육'이라 지칭하고자 하며, 말하자면 통일대비 교육의 방안,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통일대비 교육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

의 초점이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주로 하면서도 연구자가 학교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경험적 교육모형을 개발·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과 연구자가 주장하는 통일대비교육의 의미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통일교육을 사적으로 개관해 보면서 간략한 평가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본격적인 의미의 '통일교육'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통일환경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본다. 결국 '통일대비 교육'은 시급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대비 교육'의 의미는 기존의 제반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히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이후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통일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로운 민족공동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도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그것은 한 마디로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의 성격을 탐색해 보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이 동시에 궁극적인 통일교육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이념은 무엇보다 세계사의 조류에서 벗어나도 안될 것이고 우리의 민족적 요구에서 벗어나도 안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렇게 하여 통일교육의 이념이 설정된다면 이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통일대비 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수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은 3장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통일대비 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수준에서 교육해야 될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교육내용 선정과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수·학습모형을 탐색해 볼 것이다.

끝으로 5장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남은 논의를 하고 몇 가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제 II 장 통일대비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로 닥치고 말았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이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고, 기존 통일교육의 안고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1. 통일시대의 도래와 통일대비 교육의 필요성

최근 우리의 통일환경은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관련된다. 조심스럽게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과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점쳐지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북한이 강력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주장하기에는 아직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 보아야 한다는 유보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를테면 최근 여러 국내외 정황을 고려한 일련의 보도와 예측에 의하면 북한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으며 다만 그 시기가 문제될 뿐이라는 것이다.¹⁾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정치적 변동과 김정일의 지도력 불안, 극심한 식량난, 탈북자 급증 현상, 무장간첩침투사건 등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은 북한의 개방 아니면 몰락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²⁾ 특히 이 중에서도 북한을 위기상황

1) 주한 미군 군무원 Mr. Collins가 작성하여 미육군 본부에 제출한 「북한하부구조 붕괴유형」이란 보고서는 북한체제 붕괴에 대한 7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북한은 이미 붕괴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송영대 전통일원차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붕괴를 4단계로 상정할 때 북한은 이미 1단계인 식량 및 생필품공급체계가 와해됐고, 2단계인 정보통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조선일보」, 96.3.26); 또 최근 일본 방위청 산하 육상 마료간부가 작성한 「북한 3단계 붕괴 가능성」이란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임춘웅, “북한 붕괴시나리오들”, 「서울신문」, 1996.9.18); 한편 존 도이치 미중앙정보부(CIA) 국장은 미상원정보위에 출석, 북한이 향후 15년까지 존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원인이 경제난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앞으로 3년안에 북한은 남한에 대한 도발·국가의 붕괴·구체적인 통일과정의 진입 등 세 가지 방향중 하나의 길을 가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중앙일보」, 96.12.13)

2) 오인택,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편, 「통일준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3 (도서출판 오름, 1997), p.131.

으로 물고가는 것은 식량 등 자원부족 현상이다. 이미 더 이상 중앙정부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과 생필품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자원을 선별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으며, 자원공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원공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층과 지방은 스스로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하는 것 이외에 생존수단이 없으므로 북한의 소외계층과 소외지방은 독자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독자행동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餓死者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본다면 북한은 곧 붕괴되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과는 다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도 김정일을 지지하는 군부세력이 건재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기조로한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³⁾ 그러나 북한은 현재 강력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폭은 주체사상과 체제유지를 해나가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최대 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위기는 단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은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북한을 도우려 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가 우방국의 도움으로 식량난을 비롯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닥쳤음에도 체제위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처럼, 북한도 현재의 위기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체제의 조기붕괴는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가능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의 극복은 단순히 경제관리방식의 개선과 같은 국부적 조치로는 해결될 수 없고 정치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이 취해져야 가능하며, 그러한 개혁·개

3) 최수영, "북한의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한세정책연구원 편, 『南北韓 경제교류와 투자전망』 (한세, 1994); 방찬영, 『岐路에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박영사, 1995); 전용, "북한의 권력변동과 통일대책", 이영선 편, 전계서. 이 중 특히 전용 교수는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유지를 해나가는 이유로 일곱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보기로 하면 첫째, 현재 북한정권이 겪고 있는 경제난 내지 굶주림 그 자체가 체제붕괴의 직접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 이는 한국전쟁 후 한국이 미국의 잉여농산물법에 따른 식량지원으로 삶을 이어갈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 속에 있었으나 그 사실이 체제붕괴를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과 같다. 둘째, 북한은 이데올로기 국가로서 주민 모두가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으로 의식화 내지 세뇌되어 있어 체제 비판의식이 조직화될 수 없다. 셋째, 북한사회는 二重三重으로 감시와 통제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집단적 봉기나 반란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 일곱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능력,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터에 외부적인 압력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전용의 상계 논문, pp. 38-40 참조.)

방은 마침내 김정일의 퇴장과 체제붕괴 내지 체제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⁴⁾

결국 북한체제는 岐路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개혁·개방정책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체제모순이 폭발하여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한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방에 수반되는 개혁이 결국은 체제붕괴로까지 인도하고 말 것이다. 사실은 북한의 내부사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북한의 장래에 대한 위의 두 가지 예측, 즉 '돌발붕괴'와 '연착륙에 의한 붕괴'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서로 대체적인 사건이라기보다 동시에 병행하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 인식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조기 붕괴든지 먼 훗날 체제포기든지 결국은 사건이 발생하면 남한의 주도 아래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⁵⁾

급작스런 붕괴든 북한이 체제포기에 따른 소멸이든 남북통일이란 오랜기간 동안 거의 교류없이 분단된 상태에서 평행선을 걸으면서 발전해 온 두 이질적인 체제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충격임에 틀림없다. 충격의 심도는 북한이 '연착륙'을 통한 붕괴인가 또는 돌발적인 붕괴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질적인 두 체제가 통합된다는 데는 어쩔수 없이 나타날 것이다. 말이 그렇지 이질적인 두 체제가 통합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경제적 통일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분단된 두 지역의 국민을 잘 교육하여, 한 민족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한 가치체계를 공유하게하여 심리적, 정신적 통일에 이르게 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통일은 심리적 통일에 이르러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 통일이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닥쳐올 수 있으므로, 비록 정치적으로는 소극적, 피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 모르나, 교육적으로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우리는 적극적인 '통일대비 교육'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한마디로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과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에 미리 대비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현재를 기점으로 예기치 않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통일과 통일 이후에 민족공동체 형성의 주도권은 남한이 갖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는 동시에 책임과 부담을 의미한다. 독일의 통일사례는 이점을 여실히

4) 방찬영, 『岐路에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계서 참조.

5) 여기서 조기붕괴의 경우 이 붕괴가 어떤 형태인가의 문제도 있다. 즉 북한의 권력내부의 분열에 의한 자체붕괴면 몰라도 내부분열이 오히려 대남도발로 이어져서 붕괴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 문제다. 어떻게 하든 이같은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의견을 같이할 것이다. 이태욱, "체제통합에서 경제부문의 역할", 이영선 편, 『통일준비』, 전계서, p.52.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후유증을 극복하며, 남북한 주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과 상호신뢰의 분위기 조성,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심리적 준비 등을 포함하는 시민 정신이 남한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점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시대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당장 실시되어야 할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의 이념설정과 기본방향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이하에서 보듯이,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가 약한 것으로 본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간에 통일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교육은 될 지언정, 통일 이후의 삶의 양식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행해져온 교육은 아니었다고 본다.

2. 기존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통일교육의 사적 개관

분단된 상태 아래서 그동안의 통일대비는 정치와 정책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통일에 대한 교육적 접근, 즉 '통일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육은 시대와 정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이를 역사적으로 크게 개관하면 반공교육, 안보교육, 통일교육의 세 유형으로 정리된다.⁶⁾

우리는 1970년대까지 반공교육을 해왔다. 반공교육은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고 남한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반공은 곧 승공과 멸공을 의미하였다. 통일은 북한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함께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국민윤리교육은 반공교육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 반공교육은 북한의 전체적인 부정과 남한의 전체적인 긍정이라는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고 파괴적 적대의식을 고취시켰다. 여기에 이해와 화해, 협력과 포용, 공존과 통합 같은 내용이 있을 자리는 없었다. 이러한 교육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한과 북한이 분단국가로서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를 공고히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반공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가능조건을

6) 오인택,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 『통일준비』, 전개서, pp.141-143쪽 참조.

만들어 주며,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은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지배적이었던 통일과 반공은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통일과 안보라는 정치와 교육의 두 큰 규범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통일논의에서 일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공과 통일은 사실상 모순 개념이었다. 적대감과 증오심의 조장이 도덕교육의 한계로 작용하면서 효과적인 도덕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제5차 교육과정 개편을 기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은 반공통일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의 통일안보교육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문화전통을 공유하고 언젠가는 통일국가를 이루어 살아야 할 동족으로서의 북한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통일안보교육은 공산주의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민주시민정신의 고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위협적 실체를 강조하되, 동시에 반쪽이요 형제이며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통일안보교육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유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과 의식을 배양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일종의 소극적 통일교육이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적극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명칭도 통일안보교육에서 안보라는 말을 제거한 통일교육으로 바뀌었다.

통일교육은 명칭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준비하는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었다. 북한을 협력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형제로 강조하면서 남북한의 한 민족공동체됨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북한의 언어와 문화와 사회 현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였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지식을 폭넓게 심어주고 통일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를 배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2) 제6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과 문제점

(1) 통일교육의 목표

제6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통일교육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 내용으로 나누어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통일교육의 목적은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통일민주 국가를 실현하고 나

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른다.”⁷⁾로 되어 있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 각론의 목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도덕과의 일반목표에서는 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 자율적인 도덕생활 영역 등을 강조하고 있고,

중학교 도덕과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통일국가의 실현의지를 가지게 한다”고 되어 있고,

고등학교 윤리과에서는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통일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정립하고, 통일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기르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통일교육은 모든 교육기관(유치원, 초, 중, 고, 대)을 통해서 시도되어야 하되,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 밖에 있는 젊은이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도 개선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통일을 하루 속히 이루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사명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를 각 교육단계별로 연계 체계화하여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7) 교육부, 『통일교육지도자료』 (1993), pp.3~4.

8) 위 책, pp.6~7.

(2) 통일교육의 내용

제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윤리』의 교과 내용 영역의 구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1 〉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와 내용영역

바른생활	초등학교 도덕	중학교 도덕	고등학교 윤리
개인생활	개인생활	개인생활	개인윤리
가정·이웃생활	가정·학교·이웃생활	가정·학교·이웃생활	사회윤리
사회생활	사회생활	사회생활	국가윤리
국가·윤리생활	국가·민족생활	국가·민족생활	윤리생활
			통일과제

중요한 변화의 특징은 현행 제5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가 생활'과 '통일·안보생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국가·민족 생활'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통합된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조국통일과 번영'이 '통일의 과제와 전망'으로 바뀌었으며, '민주주의 이념과 현대 이데올로기 문제'영역이 '국가 윤리'에 통합되었다.

이것은 통일·안보교육이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국가·민족생활 영역은 우리의 체제 역량 강화와 통일문화 창조 기능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통일교육의 영역에 관련된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교 도덕(바른생활)과 교과목표

- 2학년 :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의지를 다지게 한다.
- 3학년 : 국가·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 4학년 :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 태도를 가다듬고, 국가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 5학년 : 국가·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과 국제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 6학년 :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표-2 〉 초등학교 도덕(바른생활)과 통일교육 내용

학교급 및 교과명	통일교육 내용
초등학교 바른생활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 갖기(2학년)
초등학교 도덕	분단 현실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3학년)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4학년) 평화통일의 방법(5학년) 통일을 위한 노력(6학년)

② 중학교 도덕과 교과목표

2학년 : 민족분단의 현실과 통일과제를 알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등을 연구하여, 통일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3학년 : 민족공동체의 변영과 통일국가의 실현 방안을 생각해 보고, 이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며,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표-3 〉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내용

학교급 및 교과명	통 일 교 육 내 용
중학교 도덕 (2학년)	(가)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 ① 남북분단의 원인과 과정 ② 민족분단과 남북한의 갈등 ③ 민족 분단의 역사적 교훈 (나) 북한의 현실 ① 북한의 정치적 현실 ② 북한의 경제적 현실 ③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실 (다)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문제점 ① 통일환경의 변화 ② 남북한의 통일정책 ③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중학교 도덕 (3학년)	(가) 민족공동체의 변영 ①바람직한 민족 공동체 의식 ②민족의 동질성 회복 ③ 민족공동체의 변영과 해외 농포 (나) 통일국가의 실현 ①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 ② 통일국가 실현의 과정 ③ 민족 화합과 민족 공동체 (다) 세계속의 한국인 ① 민족 공동체의 이상제고를 위한 노력 ②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③ 통일과 변영을 위한 노력

③ 고등학교 윤리과 교과목표

【통일의 과제와 전망】 단원 :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전립하고, 통일국가 발전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려는 의지를 기르게 한다.

〈 표-4 〉 고등학교 도덕(윤리)과 통일교육 내용

학교급 및 교과명	통 일 교 육 내 용
고등학교 윤리	(가)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①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②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 정책 ③ 통일의 장애 요인 (나) 민족 통일의 조건 ① 새로운 세계질서와 통일환경의 변화 ② 통일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 ③ 예상되는 통일과정과 우리의 자세 (다) 통일 이후의 전망 ① 통일국가의 미래상 ② 국제사회에서의 통일국가의 역할 ③ 미래 사회의 한국인 상

④ 관련교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을 중점교육 분야로 설정하여 전교과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어, 사회, 교련 그리고 특별활동을 통하여 모든 학교 활동에서 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교육활동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5 〉 관련교과 통일교육 내용

관련교육 활 동	내 용 요 소	비 고
사회과	▶ 자유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체제의 장단점 이해 ▶ 우리 고유의 민족정신, 전통문화, 관습 등에 대한 이해 ▶ 통일 비용, 빈부 격차 해소 등에 대한 경제 교육 ▶ 통일국가 체제에 대한 연구 ▶ 국제 이해교육	정확하고 객관적가치 중립적인 사실, 지식의 이해

관련교과 활	내 용 요 소	비 고
국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언어의 발굴·발전 ▶ 작문을 통일 의지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민족 공동체 의식 - 통일 의지의 심화 - 자유, 평화, 복지사회의 건설 - 삶의 질 향상 	남북한 용어 사건의 활용
교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안보 의식 고취와 심신 단련 ▶ 국가 정체성 확립 	애국심 고취
특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재구성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훈화 - 계기·행사교육 - 특별활동 - 잠재적 교육과정 	'메스컴' 정보 자료의 재구성 지도

(3) 통일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① 통일교육의 특징

이상에서 우리는 제6차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하였거니와, 제5차 교육과정까지의 통일교육에 비추어 볼 때 제6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의 특징을 지적하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도덕과에서 독립된 생활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통일·안보생활'을 앞으로는 '국가·민족 생활'에 통합시켜 다루게 된다. 이는 통일교육의 양적인 축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 내용과 기존의 국가윤리차원을 통합시킨 것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은 국가·윤리·민족 문제 등과 별도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도덕교육 전반과 어떤 이질감이나 상처점이 없이 일관성 있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반공교육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반공교육과 순수 도덕교육 간의 거리와 이질감이 도덕과 국민윤리과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기도 했었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에서는 실제로 이같은 문제점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 민족 분단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 환경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됨에 따라 통일교육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바른생활·도덕·윤리과 등을 통한 통일교육은 체계적이고 계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낮은 학년에서는 통일에 대한 염원과 상상력을 기르고,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족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기르게 되어 있다.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통일문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는 각종 통일 논의와 관련 정보 및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확고한 통일 의지를 다지며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덕·윤리과를 통한 통일교육은 그 중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통일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크게 유아교육(유아기, 탁아소, 유치원), 학교교육(초·중·고·대학) 및 사회교육(성인교육 및 직장연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아기 교육에서 통일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교육에서는 통일관련 내용이 교양강좌 수준에서 몇 시간 방영되곤 하지만 극히 드물다.

민족통일원에서 통일교육 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 대한 단기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전국에서 통일교육의 강사 역할을 하도록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전체 사회교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부분적 기여에 불과한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통일교육은 주로 초·중·고·대학의 정규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는 초·중·고·대학에서의 통일교육 시간수 및 내용 비중을 나타낸다.

〈표 6〉에서 보듯이 통일교육은 초·중학교에서는 “道德”에서,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에서 주로 가르친다. 社會(초·중) 또는 社會·文化(고등학교)에서도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법 하지만 북한 문제는 언급되나, “統一”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도덕, 국민윤리의 경우에도 통일내용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도덕과에서 다룰 교수요목 주제가 17개라면 그중의 1개만이 통일관련 주제이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2학년에서만 통일관련 주제를 가르친다. (총 주제의 1/5)

〈 표-6 〉 도덕(윤리)과 통일교육 내용주제 비중

학교급별	학 년	교과명	시간수(단위)	반공비중	통일내용 비중	비 고
초등학교	1-2학년	바른생활	주당4시간	1/20	1/17	*
	3-6학년	도덕	주당2시간	1/5	.	
		사회	주당3~4시간	6학년2/15	.	
중학교	1~3학년	도덕 사회	주당2시간 주당2시간	1/5	1/5	*
고등학교	1~3학년	국민윤리	총6단위	1/6	1/6	*
		사회.문화	총4단위	.	.	
		교련	총12단위	3/13	0.5/13	
대학	1~4학년	국민윤리 교련	총4단위	2/10	1/10	'87년 이후 폐지 (필수아님)'87년 이후(전면폐지)

* 비중은 교육과정상 주제 비중임.

고등학교 국민윤리의 총 17개 주제 중 3개만이 통일과 관련된 주제이다.

결국 1주당 1~2시간 가르치는 도덕이나 국민윤리 수업시간 중의 또 다시 작은 부분이 통일에 관한 내용에 할당되어 있는 셈이다.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은 통일의 당위성이나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1987년 이전의 내용에 비하여 제5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통일교육 내용은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홍보적 성격을 많이 탈피하고 있으나(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중, 고등학교에 이를 수록 홍보적 성격이 강해진다.

도덕이나 국민윤리 교사의 통일교육에 대한 자질은 일반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중,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윤리학과 졸업생이 배출된 해가 불과 6년전인 1984년 3월 부터라고 보면, 대다수의 도덕, 국민윤리 교사는 통일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훈련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국토통일원이나 교수연수과정을 통해서 상당부분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했겠으나, 결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을 우리는 그간 꾸준히 해온 셈이다. 이 결과로 과연 현재 우리 국민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1989년 여름에 실시한 "한국인의 이념성향에 관한 조사 연구"⁹⁾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낙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우리 시대에 통일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데 대해서 "그렇다"는 국민이

9) 교육부, 앞의 책, pp. 22~23.

49%에 이르고 “그렇지 않다”는 국민이 오히려 29%로 적다. 낙관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셈이다. 다행히 10대 낙관률 (31.1%)와 20대(35.5%)가 30~50대(25%~29%)보다 더 낙관적인 점은 고무적이긴 하다.

그러나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가능성이 만만치 않은 수준임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어린이 보호회(1990.5)서울시내 5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것이다.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학생이 18.9%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우리 교육이 통일에 대한 낙관보다는 비관적 성향을 조성 시켜 온 측면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교육 수준별 분석을 보면 이 점이 더 선명히 나타난다. 초졸(12.1%), 중졸(9.9%)의 낙관론이 고졸(8.4%), 대졸(8.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때문이다. 결과로 나타난 통일교육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통일교육의 파생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및 사회교육 분야에서의 통일교육은 그런대로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유아기 교육에서는 통일교육의 관심이 소홀했다. 그간의 이데올로기 교육 및 대 북한 교육은 주로 대학교수를 통한 대학생 교육에 치중되었다.

그 다음은 중,고교 교사에 대한 연수였고, 초등에 대한 관심은 교과서제작, 제공 이외에 별 큰관심이 없었다. 유아교육에서는 그나마 교재지원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

통일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만으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에 대한 태도, 가치관, 행위규범, 정서, 습관의 함양 등을 포함하는 지,정,의의 종합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아기 아동에서 부터 통일관련 교육이 그 기초를 다져 가야한다. 예컨대 통일교육의 핵심에는 민주시민적 자질과 품성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자질은 유치원 시절 부터 다듬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지난 40여년간 반공교육의 한 하위영역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종래의 경색된 반공교육의 이미지를 현행의 통일교육에 투사시키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 이런 인식은 교육밖의 사람 뿐 아니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교사도, 교과서 집필자도 그런 인식에서 아직 충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하면서도 이들은 종래의 반공교육적 색채를 벗어나려 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셋째, 통일에 대한 범국가적 정치,사회적 합의수준이 낮거나 취약해서 통일교육의 기초가 인정되어 있지 못하다. 예컨대 이른바 의식화 교사의 통일관과 일반교사의 그것 사이에는 대단한 거리가 있다. 양쪽 교사의 주장 중에서 학생들은 어느 것이 옳고, 바르다고 배워야 하는가? 논조가 다른 신문사나 광고회사가 아닌 한 학교 교육은

이런 문제를 책임있게 정리해서 젊은 미성년세대에게 전달시킬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과연 확고한 이론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국회차원 또는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국론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은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국민의 신념을 후세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게 아닐까?

교사는 교단이 아닌 사회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통일관을 피력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단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칠 때에는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국민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기를 바라는 바”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가(특히 국회가) “가르칠 바”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해소시켜 줄 합의된 국민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 국민적 콘센서스 없는 통일교육은 지리멸렬해 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 벌써 이를 목격하고 있는 바이다.

넷째, 그간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고, 달성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본 고가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이거니와,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통일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그간의 통일교육이 초, 중, 고, 대학의 학교급별 특징과 단계성 및 계속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재미없고, 지루하며, 신기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진부한”교육의 대명사처럼 불리었다. 따라서 통일교육 목표를 학교급별 학생들의 발달 심리학적 특성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내용이 현대성과 참신성, 시대적 적절성을 높여야 하며 교수방법 상의 획기적인 전환은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3. 통일대비 교육의 의의

이상에서 제기한 현 통일교육의 문제점들은 통일대비 교육에서는 당연히 그 해소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들은 주로 교육현장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교육의 소프트웨어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제기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현 통일교육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유보한 바이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제기해 보고자 한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로 닥치고 말았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1절에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거니와, 따라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이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교육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되는 과제는 통일후유증의 극복문제이다. 그리고 나아가 통일이후의 삶의 양식과 체제를 모색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실제 교육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전자가 당장 시작해야할 단기적 교육과제라면, 후자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통일대비 교육의 필요성과 그 의의는 이러한 과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가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더 논의하기로 한다.

1) 통일후유증의 극복

분단된 독일의 통일사례는 우리에게 실로 여러 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독일의 통일사례는 우선, 국제적 차원의 냉전질서 개편작업이 미처 완결되기 이전에 대비적 통일과정의 급속한 진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별되는 동서독의 상호 이질적인 체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합되는 선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특별한 주목을 끄는 것은 통일성취 이후의 대내적 통합과정으로서, 통일된 독일이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실제의 사정은 그렇게 긍정적인 국면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⁰⁾ 통일된 독일의 대내적 현실은 통일성취과정의 전격성이면에 대내적 통합과정상에 상당한 부담과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 혼란상을 만성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점증하는 통일비용으로 말미암은 독일정부의 재정압박과 투자의 한계성, 그리고 이에 수반한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한 서독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 등,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통일후유증만 하더라도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¹¹⁾ 게다가 공산체제하의 사회·정치적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구동독 주민들의 소외현상은 새로 도입된 시장경제체제에의 제반 부적응현상과 중첩되어 사회심리적 불안을 가일층 심화시킴으로써 체제통합과정의 순조로운 전개를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통일된 독일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통합과정상의 제반 후유증은 과도기적 혼란이 조기에 극복될 수 있다는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10) 姜光植외, 『統一後遺症 克服方案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p.1-2.

11) 金學成, “獨逸의 統一後遺症과 內的 統合의 諸問題,” 『統一問題研究』 제4권 3호(통일원, 1992), p.211.

아가 그 자체가 과도한 체제적 부담을 유발하여 과거 서독체제의 복지와 민주적 번영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저마저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험적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他山之石 이상의 절박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다.¹²⁾ 우리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통일과정상의 현격한 격차를 예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경우는 지난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이래 20여년 간에 걸쳐 착실하게 다져진 교류·협력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룩된 것인데도 그토록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합후 동·서독 주민들 간에 심각한 사회심리적 갈등요소가 문제가 되고 있음은 실로 우리에게 당혹감마저 들 정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통일교육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교육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통일대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 통일이후 삶의 양식에 대비

통일후에 한반도에 어떤 모습의 삶의 영위되고 어떤 가치관이 품미할 것이냐는 실은 전망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금부터의 常備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지금 우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닥쳐올지 모를 통일에 어떻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언젠가 귀순한 북한 대학생이 한국에서 몇 달을 지낸 다음 어떤 좌담회에서 한 말이 경악스러웠다. 그는 “북한은 미친 사회이고, 남한은 썩은 사회다”라고 말한적이 있다.¹³⁾ 이 말대로라면 어떤 계기로 지금 당장 통일되었다고 가정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남한의 이념적 승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것이다. 도리어 어떤 모양의 이념적 굴복, 아니면 극도의 이념적 혼란과 아수라장을 결과할 지도 모를 일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그에 맞는 名實을 아울러 갖추어 가고 자본주의가 그 초기적 난폭성을 극복해 나갈 때, 그것은 모두에게 흡족한 이념체계, 가치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한다면 통일이후 단일 민족국가 정체의 심화와 확산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自由와 民主主義의식의 고취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

12) 강광식, 상계서, p.2.

13) 鄭範謨, “統一韓國의 價値體系,”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39.

는 체제 어느 이념을 막론하고 절대 필수적인 것이며 통일국가의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의 승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요목이고 한민족의 행복을 위해 절실한 요건인 까닭이다. 이를 위해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심화와 확산을 위한 교과서 및 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빨리 심화되고 확산되면 그 만큼 빨리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정체 또한 굳어진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통일에도 그렇거니와 통일후에도 기필코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부터 해 나갈 통일대비 교육은 이러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통일대비 교육'은 시급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대비 교육의 의의는 기존의 제반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통일 후 유증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통일대비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가?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교육의 기본방향을 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들은 다음 장에서 다룰 주제들이다.



제Ⅲ장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과 기본방향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통일 한국의 미래상, 즉 통일국가의 이념적 지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기초하여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과 방향이 모색되어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통일대비 교육 이념설정의 근거

우리는 앞에서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기본적 지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이념적 지표를 모색하기에 앞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세계사적 조류와 민족사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한국의 이념적 지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종래의 논의에서 흔히 준거로 삼은 체제모형은 주지하듯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였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기본적 체제모형은 산업화 혹은 산업주의의 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두 체제의 내부적 변화는 현저한 것이어서 최근 사회주의권의 변화 및 붕괴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의 전개방향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적인 전개방향>이란, 요컨대 체제구성원들의 <참여>와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에 기본적 지향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¹⁴⁾

여기서 <참여>와 <복지>는 지난 200여년 동안 근대민족국가가 줄기차게 추구해온 이념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민족사회를 공동운명체라고 부르는 근대적 의미는 이를 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주민」이 국제환경이나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의 단위로서 존재한다는데 그치지 않고 민족을 구성하는 모든 동포가 공동사회의

14) 姜光植, "統一에 對備한 社會科學的 省察: 그 必要性和 課題,"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전계서, p.8.

15) 李洪九, "分斷時代의 歷史認識과 統一文化 創造," 『統一文化 創造를 위한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p.28.

운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만이 국가권력의 정통성과 이에 대한 시민의 복종의 의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 그 자체만이 근대민족국가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참여의 시대의 정치공동체가 지닌 존재이유의 하나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향상 및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를 단위로한 영광의 추구를 위하여 시민의 복지가 임의로 희생될 수 없다는 것이 근대민족국가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란 단순히 물질적 혜택만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를 포함한 총체적 생활의 質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와 <복지>를 이룩하는 국가의 형성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民主化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지난 100년에 걸친 우리 민족의 공동의 지표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변혁의 체제개편 방향도 바로 이러한 <참여>와 <복지>의 확대요구의 수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변혁의 세계적 지향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체제변혁의 구체적 지표로서의 民主主義·市場經濟·多元主義라는 三大 概念이다. 이러한 기본적 지향은 우리와 통일의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북한사회의 당위적 지향, 나아가 우리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관련하여서 볼 때 특별히 유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 民主主義의 지향은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의 이른바 스탈린주의적 독재의 청산이라는 기본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적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권위주의적 독재의 청산이라는 공유된 지향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거니와, 따라서 그것은 체제운명을 그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남북한 공유의 이념적 지향점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市場經濟의 지향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이른바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지향과 더불어 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의 社會的 市場經濟體制(Social Market Economy System)지향에 공유되는 지향점으로서, 그것은 체제성원의 실질적 생활수요를 충실히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지향점을 함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多元主義의 지향은 어떠한 체제에서든지 獨善과 教條主義를 청산하고 체제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잡다한 이해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상호 타협과 대화를 통하여 사회관계를 조정·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향점은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길들여진 상이한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의 융화점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발상법의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세계사적 변혁의 기본적 지향과의 관련에서 통일을 내다보는 이념적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니와, 요컨대 그것은 첫째, 참여와 다원성을 인정하는 민주사회이고, 둘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국제적 차원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개방적 민족주의, 평화주의의 지향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향이 없이는 통일한국의 대외적 활로를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지역협력, 범세계적 차원의 환경정화운동 등 인류공영을 위한 국제적 공동보조를 확보하는 데도 차질을 겪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설정

이상에서 논의한 통일한국의 이념적 지표에 기초하여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을 설정해 보기로 하면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은 현재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나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인정이 넘치는 복지 사회의 건설¹⁶⁾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이념, 자유의 이념, 복지의 이념을 포괄하고 있다.¹⁷⁾ 또한 이상우¹⁸⁾는 남북한 정치통합의 기본 지침으로서 '민주체제의 특성 유지'를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통일된 한국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은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주의를 가치있는 삶의 원리로 신념화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성숙한 민주적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는 일에 적극

16) 김철수, "통일 한국의 미래상," 『통일정책』, 제5권 4호, 1979.

17) 김학준, "21세기 통일국가의 형태와 이념," 21세기위원회 14차 세미나자료, 『21세기 한국정치: 체제와 이념』, 1990년 8월.

18) 이상우, "한민족공동체 정치통합의 과제," 21세기위원회 세미나 자료, 『한민족 공동체의 모색』, 1991년 9월.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인간 존엄의 최대 실현'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가는 우리의 끊임 없는 탐구과제로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이미 실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도 한다. 민주 시민 교육도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는 우리의 다양한 연구와 접근의 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 이는 민주 시민 교육에서 확고한 교육의 목표나 방법의 설정이 어렵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민주 시민 교육은 목표의 설정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 여러 다양한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민주 시민 교육은 인간 존엄성의 추구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성립 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부단한 반성과 수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 요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크게 강조하고 있다. 교육사적으로 볼때 민주 시민 교육은 해방 이후 줄곧 강조되어 왔었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 시키기 위해 학교 교육이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까닭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하겠다.

첫째, 최근에 이르러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을 토대를 전반적인 민주화와 자율화가 진전 되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분출하는 욕구와 이익 추구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와 갈등 또한 심각하게 제기 되고 있다. 이제 각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성숙한 시민적 자질이 민주적 공동체를 이룩해 나감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데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규범과 태도를 익히고, 우리 사회를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성숙한 민주적 공동체로 가꾸어나가는 데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차원에서도 민주 시민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까지 통일교육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비판하는 '반공 교육'과 민족적 동포애에 호소하는 '통일 의지 육성'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은 이제까지 통일교육에 관한 한 적극적인 자세 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곧,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일을 이끌어내고, 민족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사회를 이룩해 가는 교육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는 통일 이후의 사회 모습은 성숙한 민주 공동체이다. 이러한 성숙한

민주적 공동체를 이룩해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 교육'은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통일교육이 핵심적인 영역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각기 세계관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계층과 집단을 이루며 상아가고 있는 개방사회이며 다원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의 성원과 성원 사이, 사회 집단이나 계층사회에는 이해가 엇갈리고 주장하는 바가 각기 다를 수가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효과적인 대화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지 못하면, 국가나 사회가 지향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통일문제는 민족 성원 개개인이나 소속 집단, 계층에 따라 이해와 견해가 다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주장 또한 크게 다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가담은 통일에 거는 기대와 가치, 그리고 현실 감각, 이해 타산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인가? 각자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대화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통일은 궁극적으로 어렵게 된다. 서로가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또 민족 전체의 이익 즉, 작은 이익과 고집을 과감히 포기,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합일 시키고, 이해 당사자간의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성원의 민주 시민 의식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민주 시민 의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및 행위 규범을 키워주는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민주적 태도와 민주 시민 자질의 배양은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합과 단합을 기할 수 있어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자신과 타인의 주장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긴장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2) 민족공동체 교육

민족공동체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민족주의 이념은

민족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립한 것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교는 '민족공동체는 민족국가의 모체이자 기반이다.¹⁹⁾ 무엇보다도 분단구조하에서 남북한간에 심화되어 온 상호갈등과 적대감,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통일의 사회심리적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동질성은 오랫동안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오면서 형성된 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오늘날에서도 이것은 우리 민족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되고, 갈라져 있는 민족의 통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동질성은 오늘에 와 남북 분단이 초래한 고유 문화전통의 변질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파괴되고 훼손되어 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 온 남북한 사이에는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방식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족 문화 전통의 이질화가 계속 방치되어 남과 북의 주민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단일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 이 땅에는 서로 다른 별개의 공동체가 영구히 정착되고 말 것이며,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추진할 명분이나 당위성도 잃게 되고 만다. 이같은 민족사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길은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 분단된 민족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사회의 완전한 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 이전이라도 날로 심화되어 가는 남북간의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이질화 현상을 예방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 경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번 이질화된 가치관과 문화체계의 동질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은 갈라진 민족사회의 실질적인 통합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공동체적 삶을 대비해서도 긴요한 과업이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한 겨레라는 동족 의식을 키워나가고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첩경은 남북 상호간의 교류를 넓혀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 성원 사이의 왕래와 접촉을 비롯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 성원 모두가 우리 민족에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문화 의식과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잃었던 민족적 일체감과 동족 의식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삼국 통일 이래 1300여년 동안 이 땅에 하나의 민족 공동체적 삶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강요된 분단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19) 김한교, "민족공동체 동질성과 통일문제," 충남대 통일문제 연구소 엑스포기념 통일교육 학술세미나, 『남북한 동질성 회복의 과제와 전망』, 1993년 9월 16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당연한 민족사적 소명이며, 재통일의 추진은 저버릴 수 없는 민족 전체의 책무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남과 북,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각자는 그가 어느곳,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간에 남다른 귀속 의식과 정서적 유대감으로 연결 되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란 의식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이러한 민족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요, 갈라져 있는 남북의 주민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키는 가장 큰 명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식이야말로 온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처럼, 민족 공동체 교육은 이질화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학준은 '민족의 이념'은 국제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자결주의로 이어지며 따라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 조건으로서 경제의 자립성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하였다. 권세기²⁰⁾도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통일한국'은 정치적인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통합된 민족으로 살기 어려우며, 민족의 내적인 통합을 위하여 민족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 대내적으로는 민족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민족 공동체 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 남북한 간의 적대감 해소와 신뢰감 형성, 민족의 자존과 주체성의 함양, 공동체적 삶의 형성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거니와, 이러한 점에서도 민족공동체 교육은 재삼 강조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앞으로 추구해 나가 민족주의는 폐쇄적인 자민족 중심주의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개방적 민족주의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음의 평화주의의 지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평화교육과 관련된다.

3) 평화 교육

평화교육은 남북한 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된 한국사회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념이다.²¹⁾ 또한 한반도 내의 또다른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려면 국내외적인 평화 저해 요

20) 권세기,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한국정치학회 제3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1993.

인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교육은 북한의 평화통일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²²⁾ 나아가 평화교육은 폭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의구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평화는 소외, 억압, 지배,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²³⁾ 따라서 평화교육은 공해문제, 전쟁, 핵문제, 자연파괴, 빈부격차, 계층, 지역, 종교간 갈등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에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통일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더 바라는 입장이다.²⁴⁾ 그것은 통일된 한국의 미래가 그들에게 불투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통일환경이 자칫 지난 10여년간 조성되어 온 국제평화 무드를 깨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국이 달라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통일한국은 평화지향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의지가 교육에서도 반영되어 져야 할 것이다.

3. 통일대비 교육의 기본방향

이제 민족통일의 길은 서서히 열리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개방과 협력의 분위기가 속에서 민족 통일의 여건이 성숙해 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화해와 협력 관계가 증진되면서 민족 통일의 길은 더욱 밝아 있다.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남북합의서를 채택하는데 성공하였다.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남북한 공존을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점차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기초를 확립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점차적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21) 이상열,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법,” 최상용(편), 『현대평화사상의 이해』(서울:한길사, 1992).

22) 21세기위원회, 『2020년의 한국과 세계』(서울:동아일보사,1992), P.351.

23) 한상준, “남북 국민정서 하나로 묶는 평화교육,” 『통일한국』, 1993년 5월호.

24)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펠재단, 『통일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97통일문제 국제세미나 자료집(1997.5.8-10)

25)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앞서 II장에서 논의되었던 최근의 북한의 붕괴설과 관련한 흥분된 입장에서 한 걸

앞당길 수 있는 교육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나아가 통일 이후에 심각하게 제기될 통일 후유증을 극복하면서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에 대비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1)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은 한마디로 통일준비 교육, 통일교육이다. 즉, 통일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등의 지적기능, 가치태도, 행동규범 등을 국민에게 습득시키는 학교 및 사회교육이다.²⁶⁾ 이러한 의미의 통일교육의 핵심적 내용요소를 간추려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1) 통일교육의 기본 바탕이 필요하다

- ① 통일은 민족사적, 사회·경제적,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당위요, 실천과제임이 확고히 인식되어야 한다.
- ② 통일은 분단과 대결로 소모되어온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나아가 민족의 번영과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크게 이바지 하는 길이다.
- ③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 ④ 통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될 민족적 과제이다. 합리적인 주장과 개방적인 논의는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다.
- ⑤ 통일을 실천하는데는 고통과 희생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감내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 ⑥ 세계화는 국가경쟁력의 내실화를 담고 세계로 뛰는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통일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이다.

음 물러나서 차분히 생각하여야 한다. 북한의 닦친 가장 큰 현실적 문제인 식량난의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우리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식량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 연구가 북한의 조기붕괴보다는 연착륙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이를 떠나서 교육적 입장에서는 흥분과 서투른 예측보다는 보다 차분하게 통일을 대비해 가야 한다고 본 연구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26) 이경희,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의 모색,”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Ⅱ: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통일원, 1996), p.57-58.

27) 통일원, 『통일교육 기본방향』(1995) 참조.

(2) 분단현실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①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율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고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그 분단상태가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분단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 ② 『6.25전쟁』은 북한이 공산화 통일을 위해 도발한 전쟁으로서 민족사상 유례없는 비극이었다. 이것은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 ③ 반세기의 분단은 민족구성원의 개인적 고통과 희생은 물론 민족적 이질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무한경쟁시대에 민족번영을 가로막는 등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④ 북한사회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대비함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이룩할 상대방이면서도 이념과 체제를 비롯하여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 ⑤ 우리는 통일문제를 풀어가지 위해 북한과 대화,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적 결속을 추진해야 하는 한편, 동시에 북한과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한 안보태세를 유지·강화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 ⑥ 분단으로 인한 막대한 대가와 희생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은 자원의 결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통일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기여할 것이다.

(3) 통일여건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남조선 해방론』에 입각한 대남 혁명전략은 평화통일의 성취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 ② 우리 사회 내부의 제반 문제들도 민족화합과 통일성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 ③ 북한주민은 우리와 함께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족으로서의 북한 주민과 우리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남북한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이다. 남북한이 세계 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민족 자존과 통일의 성

취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 ⑤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과거 냉전시대의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맹목적 추구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복지의 증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주의적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상에서 통일교육의 핵심적 내용요소를 간추려 제시해 보았거니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통일에 관한 지식의 전달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으로서는 부차적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통일에 관한 지식의 전달과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의 교육은 그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일 능력으로의 교육은 글자 그대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판단 능력, 행동 능력, 가치와 의식, 한 민족 공동체와 한 국가 건설의 비전, 관용과 화해 능력, 갈등 처리 능력, 평화 능력, 인내력 등을 도야하고 배양하여 통일을 이루어 내는 역사를 말한다.²⁸⁾

예컨대, 북한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읽기를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사실을 냉정하게 전달하고 토론하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확한 이해와 이에 근거한 통일의지를 길러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선 안된다. 토론과 이해는 언제나 일정한 관점 아래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북한 읽기를 가르치되, 나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갖는 의미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북한 읽기를 가르치되 현재에서 읽기가 아니라, 현대를 과거와 유래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향하여 읽기를 가르쳐야 한다. 해방과 한국전쟁과 휴전과 분단의 현실에 사로 잡혀서 북한을 읽는 데 그쳐선 안된다.

스스로 읽기 능력의 훈련과 이미 읽은 내용을 학습하기는 전혀 다르다. 전자는 통일 능력으로의 교육이나, 후자는 다만 단순한 암기 내지 이해력의 훈련일 뿐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도덕과목과 윤리교과 중심으로 가르치기를 탈피해야 한다. 통일을 모든 교과목에서 모든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많고 다양한 화두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에 의해 창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치와 의식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단과 통일이 학생들이 다양한 과외활동에서 즐겨 선택하는 테마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남북한간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민족공동체 의식이 싹틀 수 있

28) 오인탁,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 편, 『통일준비』(도서출판 오름,1997), p.149-150.

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북한 비교시 남한을 기준으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문제와 이념비판적 성격으로 상대방의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문제 등을 극복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전통, 문화를 재확인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남북한 사이에 내재하는 적대감과 이질감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아 내어야 한다.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이라는 우리의식을 확산시키면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되어야 할 것은 통일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시키되, 두 문제가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교육함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보교육 때문에 해방과 한국전쟁과 휴전과 분단의 현실에 사로 잡혀서 북한을 읽도록 해서는 안되며, 통일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통일 이후 삶의 양식에 대비하는 교육

우리는 앞에서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은 참여와 다원성이 인정되는 민주사회요, 삶의 질의 보장되는 복지사회이고, 개방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 사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삶의 양식에 대비하는 교육은 이러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가치와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즉,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국가의 이념인 민족구성원의 자유, 인권, 행복 및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시민자실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지적 기능, 가치 태도, 행동규범 등을 습득케하는 교육이다.²⁹⁾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교육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통일을 이룬 후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장기적인 과제이다. 현 시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은 통일 후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삶의 자세를 함양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통일 대비 교육의 핵심 내용요소를 간추려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 (1)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화해·협력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2) 우리 민족의 전통과 발전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와

29) 김항원, "통일교육 방안의 탐색," 『동아시아논총』 제3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2), p.70.

30) 교육부, 『통일교육 지도자료』, 앞의 책, p.86-87 참조.

- 복지를 근간으로 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재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3) 민족의 화합을 위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4) 민족공동체는 남북간에 신뢰를 구축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비정치적 부문을 우선하여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 (5) 민족적 자주성을 높여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제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6) 개인적·사회적 긴장과 갈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이 통일을 앞당기며 대비하는 길이다.
 - (7) 평화통일을 실현함에 소요되는 비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비용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8) 통일 후에 겪게 될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대비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통일 후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교육은 역시 민주시민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 교육은 한마디로 공동체적 시민성의 함양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철학에 의해 달성된 통일한국 사회에서 남북한 주민이 자신과 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는 분단의 후유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성에서 일어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의 부적응 상황속에서, 공동체적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익히고 공동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³¹⁾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통일 이후에도 먼 훗날까지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 달성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 보다도 통일 직후에 가장 단기적 교육과제로 나타날 문제는 역시 통일 후유증과 관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지난 50년 분단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상호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이질성도 심화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의 통일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분단으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일 이후에 나타날 후유증은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³²⁾

먼저 통일 이후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간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정치적으로는 권력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최대의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재산권, 실업, 이주민, 통일비용 부담의 문제³³⁾가 심

31) 이경희,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의 모색," 앞의 논문, p.59.

32)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연구』(1995), p.185-187.

각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주민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남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의 부적응 양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일사회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심리,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심리적으로는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 정서적 불안정, 자아 정체감의 상실 등의 부적응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 주체사상, 집단주의 가치관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체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약화되면서 가치관의 방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으로는 남한의 대중문화의 접촉과 개방사회에 노출되면서 북한 내부의 계층적, 집단적 분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집단간의 이해 대립과 적응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북한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의 경제적인 격차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며, 자기 비하 의식 또는 무력감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러 가지 행동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갑자기 경제적인 욕구가 분출하여 재물에 대한 탐욕이 충만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무력감에 싸여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의 개방적이고 다양한 대중문화에 너무 쉽게 탐닉하여 방임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문화적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폐쇄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 재정경제원의 추정에 따르면, 1995년 현재로 통일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남북한의 통일비용은 향후 10년간에 적게는 2000억 달러, 많게는 400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10년 동안 매년 400억 달러, 환산하면 1992년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액수인 약 33조 원씩 든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영선 교수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고성장한다고 전제할 경우에 남한 경제가 앞으로 40년간 6.75%의 연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저성장한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연간 5.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남북한의 1인당 생산이 일치하게 될 때 완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아래서 통일비용을 현실적으로 추산해 보면, 1990년 현재 가치로 약 8418억 달러가 소요되며, 남북한 경제적 통합은 42년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이상에 대해서는,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1995), p.140; 이영선 편, 『북한의 현실과 통일 과제』(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993), p.65,81을 참조. 한편,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비용은 엄청나서 국가의 안정된 경제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상이한 추정이 있지만,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들어간 통일비용의 추정액은 6150억 마르크(약 340조 원)에서 8880억 마르크는 될 것이라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통일비용의 크기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국가 경기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 영향의 정도는 세금의 대폭 증가, 실업률의 급증, 신연방과 구연방 시민들 간의 감정의 격화, 외국인 적대감의 확산과 파괴적 보수주의의 등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한 주민의 적응 양상은 북한 주민들 만큼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남한은 사회 전반적으로 통일의 파장이 기존의 현상을 흔들면서 불안정한 상태로 돌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남한 주민들은 통일로 인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혼란,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부적응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는 통일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쉽사리 이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갖기도 할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선입관과 경제적인 격차로 인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즉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열등시한다면 남북한의 사회통합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양상은 남북한 양쪽의 단면적인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남북한 상호간의 양면적인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우선 통일사회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취하는 대처 방식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남한 주민들이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북한주민의 반응도 그러할 것이다. 만약 남한 주민들이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북한주민의 반응 또한 부정적일 것이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은 직선적이고 과격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폭력이나 폭동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은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민 사이에 우호적이면 친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간에 이해와 협력의 관계를 위한 우리는 하나라는 한 민족공동체 교육은 이러한 점에서 벌써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현시점에서 볼 때 남한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만이라도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통일대비 교육의 교수전략

통일대비 교육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남북분단을 하루속히 극복하여 자유와 복지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하는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더 나아가 해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의 통

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에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가치관, 사고와 논의능력 및 행위규범과 절차를 이해하고 습득케하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대비 교육은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질화된 문화에서 벗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이념과 체제의 상이를 초월하여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일문화로 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와 통합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문화를 창조하는 교육적 접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을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분석적 설명의 차원에서 나눈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교수의 장에서는 두 가지 교육을 일선상에 놓고 동시에 단기적·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적했듯³⁴⁾,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수·학습방식을 채택하여 단지 통일정책이나 방법 등에 대한 지식 전달 및 홍보교육에 치중하여 실시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통일에 대한 상상력, 논의방식, 절차, 통일방안의 평가안목의 배양 등을 소홀히 취급하여 통일이후의 시기에 대비하는 측면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일꾼의 배양과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한 논리적이며 비판적 인식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이 측면에서도 부족한 감이 많았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학교라는 공교육기관에 초점을 맞춘 학교통일교육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 교양필수였던 「국민윤리」가 교과과정에서 사라지면서 대학교부터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부재현상은 일반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현재 중등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의 청소년이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거의 공백이나 마찬가지로인 상태이다. 통일교육은 민족의 이질성의 확인이 아니라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민족화합을 지향하고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과 통일주체로서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대비교육은 학교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인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대비교육은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하고도 유의되어야 할 것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간에 유기적인 연관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 이상이 사회에서 가정에서는 허물어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리하여

34) II장 2절 통일교육의 문제점 참조.

모든 교육이 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사회적 실천과는 거리가 먼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특히 본고가 관심을 두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 이상이 사회적 현실에 직면하고는 엄청난 심리적 도덕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과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통일대비 교육은 모든 교과목에서 다양한 테마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³⁵⁾ 그러나 이 경우 유의되어야 할 것은 교사들이 강조하는 가치와 의식들을 공유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이 땅의 모든 지리 교사들이 지리시간에 백두산과 한라산을, 천지와 백록담을, 두만강과 압록강을 가르치면서 분단된 산하를 이야기하고 통일의 민족관과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생물교사들이 생물시간에 동식물을 다루면서 통일을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종의 통일지리와 통일생물이 수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교육은 특정교과, 이를테면 도덕과나 윤리과목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일정한 통일 지식과 시각의 주입보다도 통일능력의 신장과 배양이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키워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에의 능력은, 오히려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서,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형제간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기성세대와 성장세대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학급에서, 지역사회에서, 정당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이러한 능력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또 발휘되어야 한다. 나눔, 양보, 포기, 갈등하면서 공존하기, 여론의 주도하에 있기, 공동선을 우선하기, 상이성을 인정하기, 상대의 고유한 인격을 무조건적으로 나의 인격과 동등하게 인정하기, 물지배적이고 개방적으로 대화하며 토론하기,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질서의식을 갖고 무질서를 증오하기 같은 가치들이 국민 다수의 가슴에 담길 때 통일대비 교육은 이미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된다.

35) 오인택, 앞의 논문, p.154.

제Ⅳ장 초등학교에서 통일대비 교육의 방안모색

통일대비 교육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 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요소에 대한 경각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일대비 교육의 목적은,³⁶⁾

첫째, 자주적, 민주적,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이해 기반의 확충과 함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건전한 행위규범을 온 국민들이 갖추도록 하며,

둘째, 통일한국의 형성과정과 장차 통일한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 능력을 신장하고,

셋째, 세계속의 새로운 통일한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목적은 장기간에 걸친 교육계획하에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력을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배양하여,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에 책임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러한 통일대비 교육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

36) 중앙교육심의회 이념분과위원회, 『국·중·고교의 통일교육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1992.12), P.5.

1. 통일대비 교육의 목표설정

1) 초등학생의 인지적·정의적·도덕적 발달단계

우선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통일대비 교육의 목표 및 교육내용을 선정하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도덕적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적 특성을 피아제(J.Piaget)의 인지발달이론, 에릭슨(Erickson)의 심리성발달이론 및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기초하여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피아제에 의하면, 사람의 인지적 사고능력의 발달은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2세), 형식적 조작기(12세 이상)의 순으로 발달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의 구분에서 볼 때 초등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동들의 인지적 특성은 보기로 하면, 이 시기에 아동들은 보존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논리적 조작도 시작한다. 일련의 연속된 행위를 마음속에 표상할 수 있으며 물체의 높이나 무게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는 자아중심성이나 물활론적 사고와 같이 전조작적 사고 특징도 점차 사라지고 보다 어른스러운 사고를 하기 시작하나 아직도 대상에 대해 구체적 조작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구체적 대상이 없는 추상적 사고는 아직도 미숙하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주어질 교육의 목표나 내용은 이론적이기보다 비교 내지 사례위주의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에릭슨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심리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는데, 각 발달단계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다 구분한 8단계는 신뢰감 對 불신감(0-1세), 자율성 對 수취심(1-3세), 주도성 對 죄악감(3-6세), 근면성 對 열등감(6-11세), 정체감 對 역할혼미(12-21세), 친밀감 對 고립감(21-25세), 생산성 對 심체성(25-50세), 자아통일 對 절망감(50세 이후) 등이다. 이들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 모두 설명할 여유는 없거니와, 초등학생의 특성만을 보기로 하면 그들은 근면성 대 불신감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는 자아결정적 시기라고 에릭슨은 주장하고 있다. 또래집단 간의 관계가 중시되며 일의 성취에 대하여 칭찬을 해줌으로써 근면성이 계발된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과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이 유기적 연관성을 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학습현장에서도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습목표를 잘 성취했을 경우에는 칭찬을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콜버그에 의하면 아동의 도덕적 판단능력은 그 아동의 인지적 수준과 병행하여 발달한다고 본다. 그는 도덕성 발달은 3수준 6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1) 관습이전 수준

1단계 : 고통이나 벌을 회피하기 위해 권위와 규율에 순종하는 단계

2단계 : 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욕구충족의 수단, 순진한 도구적 쾌락주의 단계

(2) 관습 수준

3단계 : 비난을 피하고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행동

4단계 :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행동

(3) 관습이후 수준

5단계 : 사회복지·공공복리를 위한 도덕성

6단계 : 개인적 양심의 원리에 입각한 도덕성

도덕성의 모든 특성들은 한꺼번에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지만 특히 도덕적 개념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적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형성은 주입식보다는 아동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되어 갈등에 직면하고, 이 갈등을 인지적으로 해소해 나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케 하려는 교육적 노력은 각 연령 수준에 적합한 지적·정의적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행동적인 습관형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도덕적 원리와 기준을 터득하는 통합된 것으로 지향해야 한다. 위 단계 중 초등학생의 경우는 관습수준의 3단계, 즉 착한아이 단계에 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대비 교육의 목표설정

통일대비 교육의 목적은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민주 국가를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통일대비 교육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

는 체제 역량을 강화하며, 그러한 바탕위에서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 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는 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북한이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제시될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는 체제융합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이후에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 통일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통일대비 교육의 목표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 자율적인 도덕생활 영위 등을 강조하되,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년별 교육목표를 설정해 본다.

- 2학년 :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갖도록 한다.
- 3학년 : 분단현실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갖도록 한다.
- 4학년 : 통일조국의 미래모습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를 갖도록 한다.
- 5학년 : 통일조국의 삶의 양식과 국가·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과 국제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 6학년 :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2. 통일대비 교육의 단계설정 및 내용선정

1) 통일대비 교육의 단계설정

통일대비 교육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서 나선형적 교육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의 기초다지기”(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 “분단과 남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
→ “동질성 회복 및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1) 통일교육의 기초 다지기 :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우리가 그리는 통일 이후의 사회 모습은 성숙한 민주 공동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민주 시민 의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및 행위 규범을 키워주는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민주적 태도와 민주 시민 자질의 배양은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합과 단합을 기할 수 있어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일이 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 요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⁷⁾

〈 표-7 〉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 요소

교육의 목표	교육의 목표요소
'인간 존엄성'의 신념의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인간 존엄성'의 개념 이해: 시간, 공간, 지역을 초월하여 인간 생명이 절대적으로 귀하다는 명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b.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명한 삶을 추구하려는 태도 함양 c.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d.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육성 e. 자아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주체적 태도 함양 f. 공공선을 중요시 하는 자세 육성
기본 생활 예절 및 질서의 체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인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재함을 이해하기 b. 예절과 법규와 공동생활이 필수적임을 이해하기 c.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공중 질서 및 법규 준수하기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민주주의에서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함을 이해 b. 서로 다른 의견과 신념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자세 함양 c. 집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합의된 결과를 따르려는 자세 함양 d.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신장: 참여를 통하여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합리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해 b. '민주 시민 생활에 관련된' 문제(사회적 쟁점) 해결 능력 신장 c. 의사 결정 능력 개발 d.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

이제 이러한 상위 목표 요소 체계에 근거하여 각급 수준별로 이러한 목표 요소의 영역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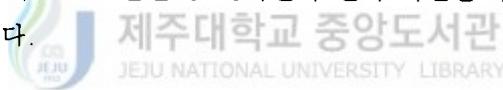
37) 한국교육개발원(편), 「민주사회와 민주 시민,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자료」, 1990.

〈 표-8 〉 학교 수준별 민주 시민 교육 목표 구성의 영역

성인	D. 합리적 의사 결정	↑
고등학생	A.	수
중학생	C. 민주적 절차와 과정	
초등학생		준
유치원생	B. 기본 생활 예절, 질서	↓
←-----영역----->		

(2) 민주 시민 교육의 내용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 시민 교육은 주로 관련 교과(도덕과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특별 활동과 학교 생활 전반을 통해서도 이루어 진다. 이같은 학교 교육의 교과과정(도덕, 국민윤리)을 통해 지도되어야 할 민주 시민 생활 교육의 내용을 살펴 보면, 38)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시민 생활'영역을 별도로 독립시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규범들을 익히게 하고 있다. 신의, 준법, 협동, 정의 등이 그것이다. 이 '주요 지도 요소들을 3~6학년에 걸쳐 학년별 수준에 맞는 소재와 형식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2) 통일대비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이제 이상의 교육단계를 고려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대비 교육의 내용체계를 선정해 보기로 한다.

(1) 교육 내용의 체계화

먼저 학교 교육을 통해 지도되어야 할 통일대비 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시해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39)

38) 한국교육 개발원(편),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교육』, 1990.

39) 교육부, 『통일교육 지도자료』(1993) 참조.

〈 표-9 〉 통일교육 내용체계

구 분	통일 교육 내용
분단의 현실	가. 분단의 배경과 과정 나. 남북한 체제의 비교와 현실 다.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통일의 준비	가. 통일의 당위성(필요성)과 의미 나.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통일 여건의 변화) 다. 남북한의 통일 노력과 문제점 라. 통일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통일 이후의 대비	가.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나. 통일국가 형성의 과정과 그 과제 다. 통일국가에 대한 대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 표-10 〉 통일교육 내용요소

구 분	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 내용요소
분 단	분단의 배경과 과정	(가) 분단의 국내외적 요인 (나) 분단 이후 남북간의 냉전 및 긴장관계 (다) 분단의 심화과정 (라) 분단의 민족사적 의의(고통과 폐해)
	양체제의 비교 및 현실	(가) 양체제의 근본 이념과 전개 과정 (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객관적 비판 (다) 자본주의 문제점의 비판적 인식 및 개선을 위한 대안의 탐색 (라) 북한 체제의 특징과 실상(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	(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 (나) 민족 동질성 회복의 중요성과 그 가능성 (다)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민족의 번영과 세계 평화)
통 일 노력	통일의 당위성(필요성)과 의미	(가) 민족사적 측면, 인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세계 평화적 측면 (나) 통일의 의미와 올바른 통일관

40) 중앙교육심의회 이념분과위원회, 『국·중·고교의 통일교육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1992.12), pp.42-43.

구 분	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 내용요소
통 일 노 력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 (통일 여건의 변화)	(가) 최근의 국제 정치·경제 외교적 상황의 변화 추세 (나)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국제적 이해 관계의 대 립과 긴장관계 (다)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있어서의 남북한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의 통일 노력과 문제점	(가) 남북한 간의 대화 전개 과정과 남북한의 입장 차 이 (나) 남북한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 (다) 남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 및 장단점 인식 (라) 통일의 전제 조건과 당면 과제 - 민족의 동질성 실현을 통한 민족 통일의 실현 (남북한의 화해와 화합 분위기 조성, 양체제의 상 호보완 및 수렴의 가능성 탐색)
	통일 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가) 통일에 대한 적극적 관심 (나) 통일 관련 제반 사회적 갈등의 성숙한 해결 (다) 통일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의 극복(합리적 사고 의 증진)
통일이후의 대비	통일 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가) 통일의 의의와 본질(형식적 통일과 실질적 통일) (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조국의 모습과 조건 (다)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남과 북의 견해차 (라) 통일 국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국 민상
	통일 국가 형성의 과정과 그 과제	(가) 남북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성 (나) 통일에 이르기 위한 점진적·기능적 접근의 불가 피성 (다) 통일에의 중간 과정에 대한 남북 견해차
	통일 국가에 대한 대비	(가) 통일 후 예견되는 대내외적 문제점(통일 후유증, 통일 비용 등) (나) 통일 조국의 세계속에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 (다) 해외 동포의 민족 정체성 확립과 교류, 협력

(2)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관련 지도 요소 추출 및 그 해설

① 지도 요소

위의 교육내용의 체계를 고려하여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육 지도요소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¹⁾ 이 지도 요소는 제6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된 초등학교 도덕과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추출한 것임을 밝혀 둔다.

41) 중앙교육심의회, 앞의 논문 참조.

〈 표-11 〉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관련 지도요소

구 분	통일관련 지도요소
분단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단의 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와 6.25 ○양체제의 비교 및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체제의 차이 · 북한의 현실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자랑 · 화합의 길
통일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인도적 측면) · 통일의 의미 ○통일 여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 ·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한의 통일노력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입장차이 · 우리의 통일 노력 ○통일 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적극적 관심 · 통일 논의에 대한 합리적 태도
통일이후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조국의 모습과 조건 ○통일국가에 대한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조국의 번영을 위한 노력

② 지도 요소의 해설⁴²⁾

〈분단의 배경과 과정〉

이 지도 요소는 조국 분단의 국내외적 요인 및 책임을 올바르게 알고, 비극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함과 동시에 평화적 조국 통일의 길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단의 역사가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분단의현실을 하나의 비

42) 이하는 중앙교육심의회 『국·중·고교의 통일교육지침 개발에 대한 연구』(1992)와 교육부의 『통일교육지도자료』(1993)의 내용을 최근에 변화된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극으로 받아 들이지 않거나, 분단 과정에서 보여 준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분단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인식시키는 것은 그러한 오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전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비롯된 냉전 시대의 유산이 바로 한반도의 분단임을 알게 하고, 국토 분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강대국 및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내부적 분열 또한 분단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시키되, 조국 분단이 민족적 비극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어야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6·25전쟁은 남북의 분단을 고착시키고 같은 민족 사이에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으로서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되어야 할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해방과 분단과 한국전쟁과 휴전에 너무 사로 잡혀서 통일의 상대로서의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통일 조국의 미래적 좌표에서 분단의 배경과 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르치되,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로 민족분단의 아픔을 해소해 나가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다음의 양체제 비교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양체제의 비교 및 현실〉

이 지도 요소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근본 이념 및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남북한의 생활을 비교함에 있어서 북한의 현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무조건 '나쁜 것', '전통과 단절된 것' 등으로 평가하고 각종의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생활상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 북한이 추구하는 가치와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면 북한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양체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양식을 취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은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국가들의 공산체제의 몰락을 소개함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

이 지도 요소를 지도하면서 또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양체제와 생활

상의 비교를 통해서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간에 제기될 수 있는 사회 심리 및 가치체계의 갈등 양상에 대한 예측과,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토론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다루는 지도요소에서 더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이 지도 요소는 북한을 대결의 대상이나 적대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화해와 협력의 대상 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간의 격렬한 반목과 불신이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으므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이질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기 보다는 우리 민족이 공유해 온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동질성은 오랫동안 하나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오면서 형성된 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오늘에서도 이것은 우리 민족 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갈라져 있는 민족의 통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남북분단이 초래한 고유문화 전통의 변질로 말미암아 민족의 동질성은 적지않게 파괴되고 훼손되어 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사이에는 가치관과 사고 방식, 생활양식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이러한 민족문화 전통의 이질화가 계속되어 남과 북의 주민을 하나로 묶어 주고 있는 단일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 이 땅에는 서로 다른 별개의 공동체가 영구히 정착되고 말 것이며, 그로 인해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추진할 명분이나 당위성도 잃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동시에 궁극적인 통일에 앞서 남북간의 다각적인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민족 사회의 기반을 하나씩 다져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우리 통일정책의 기본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의 통일정책과도 연계시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의해서 지도해야 할 점은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북한 주민과, 우리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실체로서의 북한 정권이 동일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

이 지도요소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줌으로써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분단에 따른 고통과 폐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지도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현행 교과서에는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지 않고, 주로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였던 우리 민족이 강제로 분단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민족의 원상 회복인 동시에 생명력을 되찾는 당위적인 일임을 보다 강조해 주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상당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이산가족 문제나 국력 증대 등 주로 현실적 필요성에서만 찾고 있음에 유의하여, 단일 민족으로서의 본래 모습 회복이라는 민족사적 당위성 측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통일 여건의 변화〉

이 지도 요소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단순히 소망만으로는 성취되지 않으며 통일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분단 현실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제정세의 변화 추이와 주변 각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향방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자주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우리 나라는 러시아·중국 등의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 관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특히 북방외교는 과거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 남북대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지도 요소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통일 환경은 국제 정세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교재나 기존 자료에 얽매이지 말고 교사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신선감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칫 이러한 통일 환경의 국제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다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 보다는 국제적 해결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되며, 통일의 주체는 분명히 우리 민족 성원들이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남북한 통일 노력과 문제점〉

이 지도 요소는 분단 이후 남북 양측에 의해 추진되어 온 여러 가지 형태의 통일 노력을 개관, 비교함으로써 어느 방안이 민족 전체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남북한의 통일 방안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주장이나 통일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왜 그러한 주장이나 방안들을 제시했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쉽고 친근한 용어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의 통일은 어떠한 형태의 무력을 동원해서도 안되며, 어느 한쪽의 의사가 전면적으로 무시되거나 붕괴되는 통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해야 한다.

〈통일 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이 지도 요소는 통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유발하고, 통일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를 극복케 함으로써 통일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갈등의 성숙한 해결을 위한 소신 있는 태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통일은 우리들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전체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민족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수립된 특정한 통일 방안이나 정책 방향이 자신의 개인적 소신이나 소속 집단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는 결코 인정될 수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통일이라는 목표 자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표 달성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무조건 통일부터 이루어 놓고 보자는 통일 지상주의는 현재의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통일 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이 지도 요소는 조국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통일된 조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그러한 통일 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국민상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중점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 조국의 대체적인 윤곽을 자기 나름대로 그려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개인과 국가, 민족 모두가 분단으로 인해 겪어온 갖가지 고통과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북한의 불필요한 대결로 인한 국력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많은 이로움과 함께 더 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일이 이같은 이로움과 기회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남북은 반세기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상이한 이념과 체제 아래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쌍방간에는 제도와 생활 양식, 가치 성향 등 여러 면서에 많은 이질성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 불편과 희생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고통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막중한 것이 된다. 그러나 통일은 이러한 부담이나 고통 때문에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어 둘 수 없는 민족적 지상 과업이며 민족사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

〈통일 국가 형성의 과정과 그 과제〉

이 지도 요소는 통일에의 중간 과정에 대한 남북 간의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민족 사회를 하나로 합쳐 이 땅에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 의 현실에 존재하는 상호간의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다른 입장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통일 국가에 대한 대비〉

이 지도 요소는 통일을 전후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대내외적인 갈등과 혼란, 그리고 시련을 보다 분명하게 예견하게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내지 세계에서 통일국가가 차지하게 될 확고한 위상과 그 실현을 위한 국민 각자의 역할의 재인식을 강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통일국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첫째,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족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둘째, 남북한의 동포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사회적 긴장과 갈등,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 내 직장만을 생각하고, 내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편협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내 이웃과 내 동포를 함께 생각하고, 사랑하는 폭넓은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셋째, 통일 대비하여 각 분야에서 제도를 정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역량을 비축,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에 국민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3. 통일대비 교육의 방법 : 교수·학습모형의 개발

통일대비 교육의 내용은 국내외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동태적인 민감한 문제도 다루게 되며, 어느 특정한 교과나 교사만이 지도하도록 한정되어 있지 않고 범교과적으로 전교사가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도에 있어서 특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⁴³⁾

여기서는 우선 통일대비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몇 가지 지도방법상의 원칙을 제시해 보고, 초등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으로서 탐구수업 모형, 역할극 모형, 및 정보통신매체 활용 모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 모형에 따른 수업사례를 들어 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통일교육 지도시 유의할 사항으로 교사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특정기관이나 전문가의 결론이나 해석을 그대로 전파, 주입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나 대안적인 관점들을 적절히 적시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의 전과정을 이끌어가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지적 탐구와 문제해결능력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지도방법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따르는 일방적 주입식 강의 방식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학생들이 지지, 반대, 또는 문제점을 기탄없이 제기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탐구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탐구식 수업에 있어서의 해당문제에 관련된 최신의 정확한 정보·자료를 학생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제기한 원칙이 지켜지는 통일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결국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통일교육은 남북한을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한 단일한 기준으로 당면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과학적인 시각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관련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⁴⁴⁾

이러한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즉 유동적인 통일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통일교육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⁴⁵⁾

43) 교육부, 『통일교육 지도자료』(1993), p.76.

44) 윤건영,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VI: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1995), pp.345-346.

첫째, 통일교육에서는 인지주의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종래의 통일교육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은 막연한 기대와 당위성에서 출발함으로써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한 점이 없지 않았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을 공존해야 할 형제애적 입장의 시각을 보완하고 무조건적인 상호 불신과 적대감만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지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한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거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전수를 통해 이해력과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주는 인지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이와 함께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정의적 목표가 균형있게 추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 통일교육의 기반이 되는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정의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지적 접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상황 등을 포함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남북한 체제나 통일과정의 문제를 비교할 때에도 지나친 편견이나 감정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기준이나 준거를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⁴⁵⁾ 이를 위해 교사들은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회과학적 인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직된 체제하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통일원, 그리고 교육부 등에 의해 학교 현장에 전달되고 보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유연해지고 각종 정보가 개방되면서, 통일관련 내용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 등과 국교가 수립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속에서 실시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시사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공식적인 교과과정에서 제시된 내용과 더불어 시사적인 측

45) 윤건영, 위 논문, pp.346-348.

46) 한 예로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비교하려면, 우선 남북한의 헌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조선노동당 규약이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등을 분석해 보면, 우리 체제의 이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우리가 흡수통일이나 급격한 통일보다는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통합을 추구하려는 이유,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난 변혁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을 바라고 있는 이유, 독일, 예멘, 베트남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후유증 등의 비교분석 등도 객관적인 인식에 근거한 지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윤건영, 앞의 논문, p.346-347.

면도 고려해야 한다. 즉 교사들은 시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교재연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탐구식 수업방식을 통하여 자율적인 학습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자와 학습자들은 해당 문제에 관련된 최신의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일 것이다.

끝으로, 통일교육은 '교육내용의 객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한 문제나 통일교육 내용을 제기할 때 우리의 주관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경우가 있었다. 공산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북한 내부의 문제를 지적할 때도 제공자나 출처가 불명확함으로서 설득력이 부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이나 공산권의 당사자나 제3자의 시각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⁴⁷⁾

1) 탐구수업 모형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적탐구와 문제해결 능력, 가치판단 능력 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주입식 수업보다 탐구식 수업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이 될 수 있는 지도방법으로 집단탐구 수업 모형, 개념분석 모형, 비교분석 모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⁴⁸⁾

47) 한 예로 공산주의 국가의 일당독재나 관료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산국가의 총주국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의 지적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라는 저서를 통해서 소련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하였으며,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공산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북한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있는 러시아의 문서, 그리고 소련이나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의 회고록 등에서 관련 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상황도 이제는 수없이 많은 북한 방문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이 직접 증언되기도 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 대한 문제는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이 표현한 언행을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다. 일례로 북한이 자신들의 수세적인 입장을 시인한 대표적인 발언은 김일성 자신이 신년사에서 남한이 북한을 독일통일 방식의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경계심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흡수통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윤건영, 위 논문, pp.347-348.

48) 이들 수업모형에 대해서는 윤건영, “남북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원, 『'92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6: 통일조국의 헌법·토지·교육제도·통일교육 방향』(1992)와, 교육부, 『통일교육 지도자료』(1993)을 참조할 것.

(1) 집단탐구 수업 모형

앞으로 남북통일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해결해야 될 통일과 관련된 가치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수업방법이 집단탐구 수업 모형이다.

이 수업 모형의 특징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 다양한 주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을 학습시키는데 있다.

집단탐구 수업 모형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문적 사실이나 법칙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학문적 사실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활동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흥미가 있는 문제를 선택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아 보도록 할 때 학생들이 지적 탐구의 호기심을 유발하게 된다.

셋째, 집단이 수행하는 문제 해결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의 동료들과 토의를 전개하게 되면, 문제해결의 방안을 명료화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넷째, 집단이 수행하는 문제 해결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학습하게 한다.

다섯째, 학생들은 체계적인 탐구과정을 학습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해야만 한다.

집단탐구 수업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전개한다.

제1단계: 상황이 제시와 탐구문제의 설정

제2단계: 탐구의 계획 수립

- ① 탐구집단 조직에 관한 계획
- ② 탐구할 질문에 대한 하위의 토의 주제 나열하기
- ③ 정보수집에 필요한 자원 및 자료의 출처를 계획하기
- ④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의 결정
- ⑤ 개인이 책임질 과제의 배당

제3단계: 탐구활동의 전개

제4단계: 탐구결과의 정리 및 발표

제5단계: 탐구활동에 대한 평가

이 과정에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동료들에게 제시하고 또한 발표된 견해가 존중되어지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자극시키기 위해 적절한 상황이란 첫째, 학생들에게 흥미를 자아내면서도 의미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수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셋째로는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탐구집단이 일단 구성되면 교사는 탐구할 문제들을 합리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하위의 토론 주제로 분석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수업모형을 통일교육에 도입하여 통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보면,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 능력을 고양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공동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2) 개념수업 모형

통일교육 내용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통일정책에 관련되어 남북한의 통일접근 과정에서 체결된 많은 합의서 등에는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남북한간에 합의된 공동성명이나 기본합의서 등에서 특정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통일교육에 관련된 개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 학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념 수업 모형이다. 개념 수업 모형인 기본 가정은 학생들은 교과의 기본 개념을 분류하고 변별하는 기능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념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지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자극, 사건, 경험, 정보 등을 분류하고 변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수업 모형이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개념을 철저히 학습하도록 하려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① 학습해야 할 개념을 선정한다.
- ② 선정된 개념을 학습하는 데 혼동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주의깊게 탐색한다.
- ③ 학습해야 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을 확인한다
- ④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업과정을 논리적으로 계열화해야 한다.
- 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개념을 숙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구안 한다.

개념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1단계: 가르쳐야 할 개념의 선정 및 심사

- ① 개념의 정치 - 선정된 개념들간의 종속관계를 밝혀 상위개념, 하위개념의 계열성을 세분화
- ② 개념의 선정
- ③ 교사 자신이 가르쳐야 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 ④ 개념의 곤란도 수준 평가

제2단계: 적절한 수업전략 및 보조자료의 개발과 적용

- ① 아동 발달 이론에 기초를 둔 접근
- ② 개념 학습 이론에 기초를 둔 접근
- ③ 개념 발달 촉진을 위한 수업 전략 개발
- ④ 개념 획득을 위한 수업 전략

제3단계: 적절한 평가 절차의 개발과 적용

- ① 학생들이 범주화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② 아동들의 개념 숙달 정도 평가

이러한 개념 수업 모형을 통일교육에 적용할 때, 우선 분석해야 할 것은 분단, 통일, 한민족 공동체, 남북연합, 자주, 평화, 민주, 주체, 기능주의적 통합론 등이다.

분단이나 통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면, 그 해결책의 방향도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방과 연합의 차이, 남북한이 말하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의 개념 분석은 통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체제 융합을 위한 교육이 구체화되면, 현존하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 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주체가 무엇이고 민주적, 인간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념 분석을 통해 알고 나면, 남북한의 가치통합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3) 비교분석 수업모형

현재 통일에 관련된 교육내용 중에는 남북한의 각종 분야와 요소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시간에 이러한 비교를 통한 남북한의 실상을 분석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분석, 남북한 사회체제 비교분석, 남북한 교육체제 비교 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상호 장단점을 알 수 있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남북한의 이질성만을 강조하여 실제적인 동질성 회복에 장애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남한 체제와 북한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대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비교분석 모형에 따른 남북한 비교분석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12 〉 정치이념 및 체제

구 분	남 한	북 한
이념	자유 민주주의	사회주의(주체사상으로 표현)
체제	복수 정당제도, 3권 분립주의	1당 독재, 당에 의한 권력 장악
입법권	국회의 독자적 권한	당의 결정에 대한 추인
사법권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당과 국가의 지도·감독
행정권	행정부의 독립적 집행권	당 정책의 집행
선거	선거·피선거권 보장	1인의 당후보·찬반투표

〈 표-13 〉 사회체제 및 구조

구 분	남 한	북 한
사회정책	자유·행복·복지사회 구현	수령과 당에 무조건 충성·복종하는 사회
기초		집단주의 정신 발양
사회특성	개인의 자율성 보장,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 정보의 개방	출신성분, 당성에 따른 대우, 정보의 폐쇄
계층구조	다양한 계층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에 국한 (무산계급)
평 등	누구나 평등한 권리	철저한 계급정책
주 거	거주이전 자유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배정

2) 역할극 활용 모형

이상의 탐구수업 모형이 주로 인지적 접근에 의한 교수 학습 모형이라면, 역할극 모형은 정의적 접근에 의한 교수 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인지적 학습 모형 못지않게 정의적 접근 모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역할극의 의의와 활용 모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⁴⁹⁾

(1) 역할극의 의의와 교육적 효과

49) 역할극 활용 모형에 대해서는, 이경희,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의 모색,” 앞의 논문, pp.86-88을 참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닌 상대방의 흉내를 내려는 본능에서 연극행위가 시작되었다. 오늘날 연극이 예술의 한 장르로서 구실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이 모방의 행위를 체계화하고 형상화한데 있다. 역할극은 성인극과는 달리 연극 행위보다는 역할극 행위를 통하여 정교육, 활동교육, 동작교육, 예능교육 전방에 걸쳐 교육적인 목적을 갖는다.

역할극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고 있다. 연극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순화할 수 있고, 참가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역할극에서 집단원은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각 성은 일은 분담하게 되고 일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과업 달성을 위한 역할, 기능은 선도적 역할, 정보 수집 제공 역할, 조정적 역할, 평가적 역할로 공동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교육적인 효과를 보면 '학습자가 역할극의 대상이 되므로 학습 사태의 구조와 사물의 관념을 구명하는 데 가치가 있고, 학습자는 극화에 흥미를 갖고 있으므로 그 활동은 그들의 자발적 활동의 추진과 각종의 표현 양식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그 경험이나 개념을 충분히 표현시킬 수가 있다.

(2) 극화 학습과 민주적 생활태도 함양

도덕의 문제가 타인이나 집단의 이익·목적보다는 자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서 비롯된다면 '남의 처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이 중요하게 된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할 때 집단의 목표 달성과 결속성이 더욱 강화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공동 참여하여 자기의 역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극화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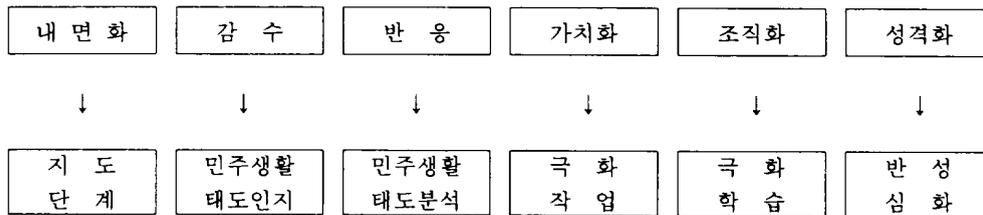
극화 학습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원거리의 상태 또는 사상적 내영을 가진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극으로 표현하여 가급적 현실에 접근 시킴으로서 학습의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방법이다. 역할극의 방법은 참가에 의한 극화와 관찰에 의한 극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는 창작적 활동을 많이 내포하며, 후자는 감상적 기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참가에 의한 극화가 보다 직접 경험에 가까우므로 학습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역할극은 다수의 협력 작업이며, 다양한 활동이기 때문에 협력이나 책임에 대한 이해와 극히 구체적인 직관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기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하기 쉽다.

역할극 교수 학습 과정의 모형 선정을 위하여 정원식의 '정의적 특성의 내면화 과

정', '감수', '반응', '가치화', '성격화'의 5단계를 본 학습에서는 잘 형성되지 못한 민주적 태도의 '인지', '분석', '극화작업', '반성-심화'의 5단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태도의 내면화를 위해 동일시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모델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비민주적 사례를 역할극으로 꾸며 교수 학습에 적용하게 된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배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탐색한다. '정의적 특성 내면화 단계'에 따라 극화 학습의 원리와 태도 학습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선정한다.



- ① '민주생활 태도인지'단계에서는 집단 공동 협의를 통하여 잘 형성되지 못한 민주생활 태도의 유형에 대한 현상이나 자극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은 인지적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
- ② 잘 형성되지 못한 '민주생활 태도분석'단계에서는 현상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그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역할극 주제를 선정하고 줄거리를 정하도록 한다.
- ③ '극화 작업'단계에서는 감수 반응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극본을 작성한다. 극본의 내용에 따라 소도구를 준비하고 배역을 선정하여 무대 연습을 하게 한다.
- ④ '극화 학습'단계에서는 역할극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역할극을 발표 관람하여 역할극 내용을 토의 한다.
- ⑤ '반성,심화'단계에서는 역할극 학습에 대한 반성 평가를 하고 나의 다짐을 적게 하여 바른 민주생활 태도를 더욱 심화하게 한다.

(3) 역할극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의 활용

역할극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주생활 태도 함양 지도계획의 자료 선정 일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통일관련 소재를 수시 수집한다. 수집된 소재는 관련 단원 덕목 요소에 적합하고 역할극 주제에 따라 극본을 작성하고, 극본 내용에 따라 소도구 무대자료를 수시 수집 또는 제작한다. 극본의 대상 구성은 연극의 감동

성, 행동성, 함축성, 상대성, 객관성, 지속성, 성격차이를 고려한다.

극본 작성은 극화 단원과 관련, 잘 형성되지 못한 민주생활 태도의 인지와 분석을 통해 역할극 주제와 줄거리를 공동 협의 또는 스스로 사고하여 소화하게 한 다음 역할극의 줄거리를 정하고 작성한다.

줄거리에 따라 작성하되, 목적과 사건의 갈등 장면이 뚜렷하고, 등장 인물 역시 실 사례에 가까운 인물을 선정하고, 연기하기 쉽도록 짧은 대화를 쓰고, 1인 1극본을 완성하되 공동협의하여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좋은 내용을 극본으로 선정토록 한다.

한 역할극 주제의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인지, 분석, 극화 작업 단계는 과외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극화학습, 반성 심화 단계는 본시 학습 시간에 활용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진행 예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14 〉 역할극 프로그램

구분	내면화 단계	지도 단계	활동 내용	자료	유의점
과외시간	감수반응	인지분석	· 잘 형성되지 못한 민주생활태도의 유형, 현상자극 의식 · 문제점 분석 · 역할극 단원선정 · 주제선정	· 사진 · 삽화 · 생활 사례	· 자기태도의 문제 점인지 · 민주생활태도 함양 지도 계획 선정
특설활용과정	가치화	극화작업	· 역할극 줄거리 정하기 · 등장 인물 선정 · 극본작성(1인1완성, 협의 통일)	극본집	· 자기극본집 활용토록 공동협의 · 짧은 대화
			· 소도구 준비(극본내용) · 배역선정(상호협의)		· 역할분담별로 수집 제작
			· 연습하기 (대사읽기, 대화연습, 대화행동, 무대행동)	극본집	· 가정시간을 많이 활용토록 한다.
본시교수학습과정	조직화	극화학습	· 역할극 주제의 목표 인식 · 극화하기 · 관람하기 · 토의(내용, 문제점)	극본집 학습장	· 인지분석 결과 · 분위기 조성: 교사
	성격화	반성심화	· 반성평가: 목표 성취도 파악, 역할반성 · 나의 다짐 쓰기	학습장	· 자기의 태도 솔직히 반성 · 실행가능한 것

3) 정보통신매체 활용 모형

통일대비 교육의 내용은 시사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공식적인 교과과정에서 제시된 내용과 더불어 시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즉 교사들은 시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교재연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자료의 활용을 위해 우선, 우리는 교수 학습에서 NIE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신문은 살아있는 학습교재이다. 교과서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학교교육을 바로 현장화해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하고 학습이 가정과 사회에 연결이 되어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물론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신문은 교과서의 원론적인 교육을 보강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사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신문을 스크랩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신문을 읽고 정보를 획득하고 자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탐구수업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언론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각종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시설이 갖추어짐으로서 새로운 교육공학이 학교 현장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통일교육에서도 이러한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최근에 학생들에게 엄청난 수요와 관심을 얻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통일교육 활용 가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¹⁾

정부차원에서도 최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확대 및 이에 따른 이용자 증가 등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인쇄물 등 기존의 홍보매체의 한계를 극복

50) NIE(Newspaper in Education)제도는 '교육속에 신문을 활용하자'는 것으로 현재 북미, 유럽, 일본, 호주 등 20개국에서 실시돼 청소년들의 사회성, 의견 개진 및 판단능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NIE는 1989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90년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파일럿계획」이 초·중·고 66개교에 실시되고 있는데, 일간지를 교실에 비치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문을 오려 노트에 기사를 읽은 감상이나 의견을 친구들과 토론해 비교, 평가하기도 한다. 한국교육신문, 1995년 4월 12일자, 여기서는 윤건영, 위 논문에서 재인용.

51) 이에 대해서는, 서진완, "통일대비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매체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모색,"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VI: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1995), pp.1-89 참조.

하기 위해 PC 등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92년 7월 6일 (주)데이콤의 천리안Ⅱ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993년 7월 8일에는 (주)한국PC통신 HITEL을 추가 설치하여 일반 국민들이 PC 통신망을 통해 남북한 통일정책, 남북관계 진전상황, 남북한 주요 합의사항, 주간 북한동향, 남북교류협력 절차와 동향, 북한관 관람안내, 북한영화 상영 및 자료열람 등 통일·북한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정책 나도 한마디'라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년 8월 11일에는 남북교류협력 상담실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설치, 전화통신망을 통해 통일방안, 이산가족, 남북한 방문 및 북한주민 접촉, 남북한간 물자교역,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협력기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PC통신을 통한 통일·북한 정보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⁵²⁾

〈 표-15 〉 PC통신 통일·북한 정보자료 목록

통일정책 : 남북교류 협력 안내 자료	통일게시판 : 통일마당 자료
11. 우리의 통일정책 1. 새로운 통일환경 2. 새로운 통일정책의 추진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2. 북한의 통일정책 1. 대남전략의 기초 2.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13.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14. 통일문답 15. 주요 남북 합의 문건 22. 남북교류협력 동향 23. 남북교류협력관계 법규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후속법령 2. 남북협력 기금법 및 후속법령	31. 보도자료 32. 주간 북한동향 33. 북한영화 상영안내 34. 북한관 관람안내 35. 통일전망대 관람안내 36. 북한자료 열람안내 37. 알림터 41. 통일 한마디 42. 통일포럼 51. 통일문제 전자공청회 61. 통일북한 자료실

이러한 PC통신매체는 초등학생들에게도 그들이 갖고있는 적극적인 취향과 열린 매체로서의 특성을 살릴 때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

52) 이경희, 앞의 논문, p.66.

제 V 장 결 론

분단시대가 가고 통일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의 삶의 양식을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교육적 노력이 하루빨리 전개되어야 한다. 지적·정의적·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그들은 통일 이후의 주역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통일대비 교육은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추진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남기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먼저 II 장에서는 통일시대의 도래에 주목하고 통일대비 교육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알아 보았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엄격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의미의 통일교육이 시작된 것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라 하겠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은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매우 획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교육기획으로서는 아직도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도 현장의 통일교육에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교수 자료와 교수 기법의 개발·보급이 미비하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교육과 교수 자료 및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은 통일직후에 예상되는 통일후유증과 통일비용을 감내하고 북한동포들과 더불어 통일민주 국가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민족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국민상, 즉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바로 통일대비 교육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교육방안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대비 교육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대비 교육방안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모색을 해보고자 한 것이 III 장에서의 목표였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일은 한국의 주도하에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는 단순히 현재의 우리 체제를 북한에 이식시키는 차원과는 다르다. 그것은 세계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더욱이 민족사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것은 북한체제의 획기적인 전환은 물론이고 현 한국의 이념과 체제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참여와 다원성이 인정되는 민주사회,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 사회, 개방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는 평화사회라고 보았다. 따라서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은 이러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 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으로 민주시민 교육, 민족공동체 교육, 평화교육을 제시하였고 각각 그 의의를 논하였다. 먼저 민주시민 교육은 통일 이전부터 시작하여 통일 이후까지 장기적인 계획하에 시도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교육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나긴 세월동안 이질화되어온 남북한 주민들간에 동질화를 추구하고 통일을 공고히 하며 모든 민족구성원이 통일이후에도 세계속의 한민족으로 발전과 번영을 기약하는 기반이 되는 교육이다. 그리고 평화교육은 가장 가깝게는 통일의 전도에 있어서 어떠한 무력이나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번영을 위하여 세계 민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념으로서의 중요한 것이었다.

이제 이러한 통일대비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을 앞당기는 통일교육은 물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큰 두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일대비 교육의 내용들을 체계화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것은 ① 통일논의의 기본 전제, ② 분단현실의 이해, ③ 통일여건의 인식, ④ 통일준비 등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지식 교육보다도 통일을 하는 능력에로의 교육이다. 그래서 통일대비 교육은 주입식에 의한 정부나 교육부의 방안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북한 읽기를 가르치고 사실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교수 전략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장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통일대비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초등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도덕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통일대비 교육의 목표는 직접적인 통일교육에 못지 않게 가장 기초적인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학년별 통일대비 교육의 목표를 제시해 보았다.

다음으로 통일대비교육의 단계는 통일기초다지기(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분단과 남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동질성 회복, 및 민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 →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이라는 순환과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제시해 본 것에 불과하며 교육현장에서는 동시에 또는 순서에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교육에 필요한 구체

적인 교육내용과 지도요소를 특히 6차교육과정 이후 달라진 도덕교과에 비추어 추출하였고 그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통일대비 교육의 방법, 즉 교수학습의 모형으로는 인지적 접근을 위한 탐구수업 모형과 정의적 접근에 초점을 둔 역할극 활용 모형,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도래를 고려한 정보통신매체 활용 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탐구수업 모형은 기존의 통일교육에서 가장 맹점으로 지적되어온 가치주입식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가치탐구적인 교육방안이다. 그것은 사실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한 판단력 증진 모형이고 토일 능력에로의 교육 모형이다. 여기서 고려될 수 있는 탐구수업 모형으로 집단탐구 수업 모형, 개념분석 모형, 및 비교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역할학습 모형은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모형으로서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는 민주생활 태도 육성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이며 남북 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습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통신매체 활용 모형은 우선 NIE프로그램의 활용을 하자는 제안을 해보았다. 그리고 특히 최신 개인용 컴퓨터의 광범위한 수요와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컴퓨터를 이용할 통일교육에의 활용은 매우 주목되어야할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는 본 연구를 간단히 요약 제시해 보았거니와, 마지막으로 통일대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남기면서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① 통일대비 교육은 도덕교과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도하되, 범교과적으로 그리고 혼화, 행사, 시사 계기교육, 환경 계기교육 등 전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사들은 통일관련 서적과 정부 또는 연구 기관의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여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지도 관점을 스스로 형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문, 잡지, 영상 자료, 관련 서적 등 생생한 시사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나 내용의 구성취지를 벗어나거나 편향된 주견을 가지고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과 주관적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이 사회가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바르게 파악해서 지도해야 한다.

④ 통일대비 교육은 일방적 강의 보다는 실증, 사례 중심의 토의식, 탐구식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석,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⑤ 통일대비 교육은 학생들이 북한 실상을 바로 알고, 통일을 향한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데 도움을 주어야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적대감을 유발하거나, 북한을 실제 이상으로 표현하여 동경심을 갖게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북한 영상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비판적 기능이 강한 우리의 언론과는 달리 북한 TV 영상자료는 주민에 대한 계도성과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 못 해석하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은 외우게 하거나 주입시키기 보다는 결론에 대한 과정과 대안적인 관점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도록 지도한다. 즉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결론적 명명(conclusive labeling) 보다는 그와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나 까닭을 사실대로 소개, 인용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근거에 입각하여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인, 집단, 국가의 각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타협되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는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토록 하여 이러한 절충 과정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⑧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수업을 운영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지적 탐구와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격려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자생력의 배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⑨ 통일대비 교육은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써야 한다.

참고문헌

- 강광식외 (1994),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공보처(1994.9.30),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정부간행물 제작소.
- 곽병선,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20주년기념 학술세미나자료, 『21세기의 사회, 인간 그리고 교육』.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4),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1993), 『통일교육 지도자료』.
- 교육정책자문회의(1990.9),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 권세기(1993),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한국정치학회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 김성봉 외(1990), 『중학교 도덕교육 실태분석』, 서울:한국교육개발원. 김학성, 「독일의 통일후유증과 내적 통합의 제문제」, 『統一問題研究』 제4권 3호, 통일원, 1992.
- 김학준(1990.8), 「21세기 통일국가의 형태와 이념」, 21세기위원회 14차 세미나자료, 『21세기 한국정치: 체제와 이념』.
- 김한교(1993.9.16), 「민족공동체 동질성과 통일문제」, 충남대 통일문제 연구소 엑스포기념 통일교육 학술세미나, 『남북한 동질성 회복의 과제와 전망』.
- 문교부(1989), 『통일.안보교육 지침서』, 서울:문선경이 주식회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6), 『정책연구: '96통일정책포럼 자료집』.
- 박경란(1989),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중등교과와 관련해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주(1991), 『북한의 주체사상과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찬영(1995), 『岐路에서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 박영사.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1995.12),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모형 개발』.
- 서진완(1995), 「통일대비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매체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모색」,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VI: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 연합통신사(1950~1995), 『북한 50년』.

- 윤건영(1995),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VI: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 21세기위원회(1992), 『2020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동아일보사.
- 이경희(1996),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의 탐색」,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II: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통일원.
- 이상열(1992),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법」, 최상용(편), 『현대평화사상의 이해』, 서울:한길사.
- 이상우(1991), 「문화전통과 통일과제」, 미원문화재단편,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 이상우(1991.9), 「한민족공동체 정치통합의 과제」, 21세기위원회 세미나 자료, 『한민족 공동체의 모색』.
- 이영선 편(1997), 『통일준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이흥구의(1985), 『통일문화창조를 위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용길(1989), 『분단국통일론』, 서울:고려원.
- 중앙교육심의회(이념분과위원회)(1992.12), 『국·중·교교의 통일교육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 최성일(1990), 『1980년대 한국사회급진 변혁론의 형성과 추이에 관한 연구』,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일연수원(1996.5),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 통일원(정보분석실)(1995.12), 『북한개요』.
- 통일원(1995), 『'95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V: 통일대비 관련 분야』.
- 통일원(1996), 『'96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II: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 통일원(1992), 『화해협력 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 통일원(1994),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 통일원(1995),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1997.58~10), 『통일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97 통일문제 국제세미나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도덕교육연구실)(1998.10.27),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 한국교육개발원(1991),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합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4),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4),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4), 『남북한 교육 및 학술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 한국교육개발원(1994),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5),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5),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0), 『민주사회와 민주시민: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90),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교육』.
- 한국교육개발원(1994), 『분단 및 통일국가 교육통합 사례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88.10.27),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통일교육 방향탐색을 위한 세미나 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1994),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통일·안보교육 지침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 한만길(1994sus 겨울),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모색」, 평화통일연구소, 『통일문제연구』.
- 한만길(1995), 『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과 교사들의 통일교육관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1994.12), 『남북한 교육의 동질성 추구를 위한 방향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1996.6.12),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과 과제』.
- 한상준(1993년5월호), 「남북 국민정서 하나로 묶는 평화교육」, 『통일한국』.
- 한세정책연구원 편(1994), 『남북한 경제교류와 투자전망』, 한세.

〈Summary〉

The Study of School Education to Prepare Unification - Focusing on Primary School -

Ko, Che-Soo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The school education to prepare unification has been required because the unification period of Korean peninsula is close at hand. The educational efforts should have been developed for advancing the unification as well as adjusting the different life styles expected after the unific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t is very important for a primary-school pupil to be educated because they become the leading part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very valuable to teach them how to prepare the unification. This thesis has been studied under the situation described above and approached the different life styles when faced the unification. Preparing the unification, how to educate a primary-school pupil has been focused in this study.

In the first chapter, the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have been mentioned. The necessity and meaning of school education ha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been studied in the second chapter. The meaning of education to prepare unification is to minimize the aftereffect seriously faced after the unification and to make a new community. In Chapter three, the doctrine of education, basic direction and teaching technology have studied. With the doctrine of education, three different groups are classified as the democratic city education, community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Also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are suggested for these group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eaching skills should have been improved. In the fourth chapter, the education technology to prepare the unification at a primary school has been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discussion mentioned above. Especially, this thesis introduces that inquiry study, role play, and media are very helpful for teachers and parents.

Finally, following results have been concluded in Chapter five. It is not easy to establish one country from two different ideologies. Even if the Korea peninsula is unified, economical problems taken place naturally should be considered. Educating the divided Korean, it is more difficult to share the unique doctrine of community considering physical and psychical aspects.

We expect the this thes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ifying this country.